창 LawSCHOOL

미래의 희망 법전원

2015. MAY + JUN
05/06
ISSN 2289-0262

KNU 강원대학교 KU 경북대학교 경희대학교 고려대학교 동아대학교 부산대학교 서강대학교 서울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아주대학교 연세대학교
영남대학교 원광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인하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제주대학교 CAU 중앙대학교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KOREAN ASSOCIATION OF LAW SCHOOLS

prologue

헤르만 헤세,
〈켈트루트〉 중에서

젊음과 성숙을
우리는 확연하게 구분할 수 있다.
자기중심주의가 끝날 때 젊음은 끝난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 때
성숙은 시작되는 것이다.

LawSCHOOL 창

미래의 희망 법전원

2015

05 + 06

발 행 일 2015년 5월

등 록 번 호 2289-0262

발 행 인 신영호

편집 · 진행 김명기 국장, 박소희 주임

발 행 처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02-752-2037)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1길 34, 5층

디 자 인 편집회사 나무(02-2268-2592)
서울시 마포구 독막로 3길 51

인 쇄 삼화인쇄(주)

〈로스쿨 창〉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홈페이지(info.leet.or.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표지모델: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

04 **로스쿨 탐방**
이원우 원장과 함께 한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08 **로스쿨 생활백서**
가인 법정변론 경연대회를 부탁해!

12 **행복 로스쿨**
서울시립대학교 로스쿨 문건협 학생 인터뷰

14 **파워인터뷰**
정혜진 국선전담변호사

18 **로스쿨 오피니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신영호 이사장

20 **로스쿨 확성기**
변호사시험과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현실

24 **로스쿨 특파원**
about the lawschool_ 서울대 김하영
about the world_ 전남대 이대일

28 **통계로 보는 로스쿨**
2015학년도 합격자 통계자료

30 **언론 속 로스쿨**
2015 로스쿨 잡콘서트

34 **소통의 창**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김명기 사무국장

36 **SPECIAL REPORT**
기획기사 6탄: 호주 법조인

42 **특별기고**
전국경제인연합회 이정은 변호사

44 **그림 읽어주는 변호사**

50 **톺아보기 / 문화가 산책 / 로스쿨 핫이슈**

56 **협의회 소식 / LAW 낱말퀴즈 / OUT CAMPUS**

1895년 근대 법학의 돛을 올린 이래 서울 법대는 시대와 함께 발전하며 우리나라 법학발전을 선도해 왔다. 이원우 원장은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인재'라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 이념을 밝히며, 법조인이라면 사회에 환원하고 기여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ditor. 박소희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인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양성합니다!

Q.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세계적인 법학의 전당'이라는 타이틀이 수식어처럼 늘 따라다닐 만큼 훌륭한 인재들을 많이 배출하고 있어 자부심이 클 것으로 생각된다.

A. 올해는 서울법대 120주년을 기념하는 해이다. 1895년 서울 법관양성소를 시작으로 지금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이르기까지, 이름은 바뀌었지만 하나의 학교였다. 특히 우리나라의 독립, 근대화, 산업화 그리고 민주화의 견인차 역할을 해왔으며, 국회, 행정부, 사법부, 경제계, 언론계 등 사회의 여러 영역에서도 선도적인 역할을 해 왔다.

2009년에 개원한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들에 대한 사회적인 평가가 매우 높으며, 최근 한 언론사에서 실시한 평가에서도 대부분의 영역에서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했다. 국내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인정받는 58명의 최고의 교수진을 갖추고 있으며, 그 가운데 32명의 교수님들께서는 전직 판사, 검사, 변호사, 외교 공무원 등 각 실무영역에서 최고의 역량을 발휘하시던 분들이다. 이러한 교수진의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기존 사법연수원에서는 제공할 수 없었던 교과목들을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다. 120년 동안 전통적으로 서울법대가 해왔던 역할과 자부심에 상응하는 결실을 맺기 위해 교수와 학생들 모두 노력을 하고 있다. 앞으로도 이렇게 유구한 전통을 끊임없이 이어가려고 한다.

Q. 교육 목표는 무엇인가?

A. 서울대학교 법대의 교육목표는 일제시대에는 조국의 독립, 이후에는 근대화, 산업화, 민주화 등으로 시대적 과제가 변할 때마다 함께 변해 왔다. 그러므로 현재는 21세기 세계화 시대에 걸맞은 '국제경쟁력 있는 우수 법률가 양성'이 교육 목표라고 할 수 있다. 시대의 요구, 시대정신에 따라 형태는 바뀌었지만, 기저에 있는 교육 철학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법률가 양성'이다.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위해 공헌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법률가 양성을 바탕에 두고 있다.

Q. 다른 법학전문대학원과 차별화되는 학생 지원 혜택이 있나?

A.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원활한 적응을 위해 신입생 전원에게 '상담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전문 심리상담사와 상근 변호사가 상담에 투입되며, 1차 상담 후 2차 상담이 이루어지는 등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또한 신입생과 2,3학년 학생들을 1:1로 맺어주는 '멘토링 제도'와 '집단 지도교수제'가 있다. 집단 지도교수제는 학생 10명에게 4명의 교수를 배정해서, 연구년, 안식년 등으로 공석이 생겼을 때에도 학생들이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해 놓은 제도이다. 이 외에도 사제 간의 자연스러운 교류의 장인 '교수와의 점심'이라는 프로그램도 실시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서울법대 초청강연', '전문가 특강'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초청 강연을 열고 있다. 학생들의 진로탐색과 더불어 더 넓게 세상을 볼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다.

Q. 국제법무, 공익 · 인권법, 기업 · 금융법을 특성화로 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하다.

A. 사실 세 가지의 분야는 법학전문대학원이 설립되기 이전부터 서울 법대가 계속 중요하게 생각해서 역점을 뒀던 분야이기도 하다. 우선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국제경쟁력을 갖춘 우수한 법률가의 양성을 교육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법무'를 특성화로 정했다. 과거만 해도 우리나라 기업이 세계로 진출하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었지만, 이제는 세계 속에서도 1,2등을 다투고 있다. 이에 따라 법률가들도 함께 진출해야 하고, 국제시장의 경쟁력이 향후 우리나라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관건이라고 생각했다.

'공익 · 인권법'은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인재 양성이라는 교육철학을 토대로 정해졌다. 특히 공익 · 인권은 서울대학교와 같은 국립대학에서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학문적으로나 실무적으로 고사될 가능성이 큰 분야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 법대는 로스쿨 설립 이전부터 공익인권법센터를 설립하고, 공익 · 인권 분야의 경험과 역량을 축적해왔다.

마지막으로 상당수의 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대형 로펌이나 기업으로 진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러한 수요에 부합하고자 '기업 · 금융법'을 특성화 트랙으로 마련했다. 학생들이 충분히 실습한 후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금융법센터, 공익산업법센터, 경쟁법센터, 건설법센터 등을 설립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Q.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인재상은 무엇인가?

A. 첫 번째는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인재'이다. 개인적인 영달만을 추구하고, 이기적이고 근시안적인 시각으로 지원하는 사람은 원하지 않는다. 거시적인 시각으로 국가, 나아가서는 인류 공동체까지도 생각하는 사람을 원한다. 두 번째는 '수월성'이다. 물론 능력보다 인간성이 더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능력이 없으면 안 된다. 기본적으로 우수한 성적이 뒷받침돼야 한다. 단순히 학점과 리트 성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동안의 삶과, 그 속에서의 진지한 탐구열이 더 중요하다. 따라서 자신의 과거, 현재, 미래상을 그릴 수 있는 인재를 선호한다. 마지막으로 '다양성'을 중시한다.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여러 분야에서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다양한 전공과 경험을 가진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색깔을 가진 사람들 속에서 잘 융합하고, 스스로를 발전시킬 수 있는 인재를 원한다.

Q. 한국 법조계가 경기침체, 실적 악화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법조인의 수가 많다는 논란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이 있나?

A. 우선 법조계만이 경기 침체를 겪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반의 경기가 침체됐다는 점을 감안하여야 한다고 지적하고 싶다. 과거

우리나라의 법률시장은 크게 두 영역으로 구분되어 있었다. 사법시험 합격자는 '전통적인 법조직역'에 종사하고, 그 외의 법과대학 졸업생은 기업 등의 다양한 직역으로 진출했다. 그런데 독일과 미국의 경우,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전통적인 법조 직역 외에 매우 다양한 직역에서 일하고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이는 두 시장 간의 칸막이가 없어 자유롭게 이동을 할 수 있음을 뜻하는데, 로스쿨은 바로 이러한 장벽, 칸막이를 없애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이다. 전통적인 법조직역만 놓고 본다면 일자리가 부족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 외의 다양한 직역으로 눈을 돌리면 진출할 수 있는 일자리는 얼마든지 있다. 해마다 약 9천여 명의 법과 대학 졸업생이 배출되던 때와 다르게, 요즘은 1,500여 명의 로스쿨 학생만이 졸업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봤을 때에 법조인 배출은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한편, 종래에는 변호사가 진출하지 않았던 다양한 영역에 변호사들이 진출하고 있다. 예컨대 지방자치단체나 중소기업에 많은 변호사들이 지원하고 있으며, 지방, 동네 아파트단지로도 변호사들이 들어가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로스쿨제도가 의도했던 것이다. 변호사의 문턱이 낮아진 것이다. 더 많은 서민 · 대중이 변호사로부터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고 있다. 국민들의 입장에서 이룩한 사법개혁의 대표적인 성과가 로스쿨제도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Q. 서울대학교 일대에는 여전히 고시촌이 밀집되어 있어,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사법시험을 존치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A. 사시존치론의 중요 논거로 제시되는 것이 이른바 '희망의 사다리'이다. 사법시험을 통해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도 변호사가 될 수 있지만, 로스쿨은 등록금이 너무 비싸서 귀족학교, 돈스쿨일 뿐 사회계층 이동의 기능을 못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오히려 로스쿨 제도야말로 희망사다리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는 사실이 객관적인 데이터로 나타나고 있다.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많은 학생들은 소위 '신림동 고시촌'에서 생활하며 매월 교재비, 학원비, 숙식비, 생활비 등의 많은 비용을 지출해야 한다. 시험 준비 기간이 5년에 달하고, 그나

마 평균합격률이 3~5%에 불과하다. 경제적 취약자는 이러한 불확실한 미래를 위해 오랜 기간 상당한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대부분은 중도에 포기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법학전문대학원은 매년 특별전형을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으며, 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게는 전액장학금 및 부분적으로는 생활비까지 지급해주고 있다. 서울대학교 법전원의 경우 3기까지 28명이 특별전형으로 입학했는데, 이 중 이번에 변호사시험을 치른 2인을 제외하고 26명이 취업을 했다. 그 중 검사가 4명이며, 법무법인 10명, 기업법무팀 6명, 공공기관 2명 등 다양한 분야에 성공적으로 진출했다. 이들 대부분은 기초생활수급자였고 장애인도 여러 명이 포함되어 있다. 서울대 로스쿨 한 곳에서 3년간 이루어 낸 성과만 보더라도 로스쿨 제도가 희망사다리 역할을 얼마나 더 잘 수행하고 있는지 명백하게 알 수 있다.

사법시험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변호사시험 제도로 왔다. 어느 제도나 문제가 있기 마련이고, 문제가 발견되면 수정을 하면 된다. 우리나라 경제침체와 함께 로스쿨 제도의 일부 문제점이 드러나자 개혁의 성과를 구시대로 돌리려는 시도들이 드러나고 있어 개탄스럽다. 과거를 망각한 어리석은 처사이다. 변호사단체가 공공성을 상실하고 직역이기주의에 빠지게 되면 그것이야말로 변호사 직역 전체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고 더 큰 위기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Q. 변호사시험 경쟁이 심해지면서 다양한 인재양성 취지가 훼손된다는 우려가 있다.

A. 우리학교 학생들의 경우 1-2학년에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활동에 참여하며, 주로 3학년 때 변호사시험을 준비한다. 그렇기 때문에 3년 내내 변호사시험에 몰두하는 현상은 타학교에 비해서는 적은 편이다. 하지만 전체 법전원을 놓고 봤을 때에는 꽤 심각한 상황이다. 법전원 설립취지에 맞게 시험 과목 이외에도 다양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변호사시험으로 인해 방해를 받고 있다. 변호사시험은 사법시험처럼 '선발'시험이 아니라 '자격' 시험이다. 그러므로 일정 수준 이상의 응시자라면 합격할 수 있는 형태로 출제되어야 한다. 합격률을 응시자 대비 75% 수준으로 높여야 학생들이 시험에 얽매이지 않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Q. 한 법전원을 이끌어가는 원장으로서 최대의 고민은 무엇인가?

A. 우리나라에 로스쿨 제도가 정착 · 발전할 수 있도록 내실화를 기하는 것이 당면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이는 서울대학교 법전원만 잘 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 로스쿨 전체가 힘을 모아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여러 법전원이 연합을 해서 하나의 프로그램을 만드는 등의 상호 연대가 잘 이루어져야, 로스쿨도 제대로 정착되고 내실화를 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졸업생들의 진로가 대형로펌에 편중되는 것 역시 우려할 만한 사항이다. 판 · 검사, 변호사뿐만 아니라, 공무원, 재계, 언론계 등 다양한 분야로의 진출을 통해 우리 사회에 법치주의가 확산되기를 기원한다.

Q. 향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어떤 방향으로 발전시킬 계획인가?

A. 지금까지 쭉 해왔던 것처럼 학생들이 사회에 나가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할 것이다. 또한 교육목표인 국제경쟁력 있는 우수 법률가를 양성하기 위해서도 노력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재교육'이라고 본다. 사회에 나가 있는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에게 재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한 시점이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의 전문화를 위해, 다양한 재교육/전문화 프로그램을 구상 중에 있다.

Q. 법조인이 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점은?

A. 법조인은 호화로운 삶, 멋있는 삶을 꿈꿔서는 안 된다. 잘못된 특권 의식을 버리고, 세계 곳곳으로 가서 사회 발전의 길을 열어야 한다. 어떻게 하면 사회에 환원하고, 국가 나아가서 세계를 위해서 기여할 것인지 고민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적 사명을 수행하는 것이 법조인의 임무이기 때문이다. 그래야 사회적으로도 법학전문대학원이 지지를 받을 수 있다. 장차 법조인이 될 학생들이 한국 법학의 중심적 지위에서 더 나아가 세계 법학을 선도하는 역할을 수행해주기를 당부한다. 창

대한민국 사법부 초대 대법원장 김병로(1887~1964) 선생의 호를 딴 '가인(佳人)' 법정변론 경연대회는 올해로 6회째를 맞이한 명실공이 로스쿨 학생들의 인기 경연대회다. 강의실에서 배운 이론이 현실 재판에서 어떻게 적용 · 구현되는지 생생하게 체험해볼 수 있기 때문에, 치열한 경쟁에도 해마다 많은 학생들이 팀을 이뤄 참여하고 있다. editor. 박소희

가인 법정변론 경연대회를 부탁해!

※ 가인 법정변론 경연대회

Q. 가인 법정변론 경연대회는 어떤 대회인가요?

A. 실제와 다름없는 사건을 현직 법관들로 구성된 재판부 앞에서 원 · 피고의 대리인 또는 검사, 변호사 역할을 수행하여 재판을 진행해볼 수 있는 대회입니다. 대법원이 주최하고 법원행정처가 주관하며, 올해 6회째 대회가 진행된 만큼 주요 법정 변론대회로 자리매김 했습니다. 대회의 명칭은 가인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님의 호를 따서 지어졌습니다.

Q. 대회의 전반적인 프로세스와 일정이 궁금해요!

A. 서면 심사를 통과한 민사, 형사 분야의 각 36개 팀(6개 팀씩 6개조로 편성됨)이 본선을 치르고, 그 중 각조의 1위인 6개 팀이 다시 결선을 치르는 프로세스입니다.

서면심사
- 참가 신청 절차가 종료된 후에 경연 분야별로 서면 심사 절차 실시
- 참가팀은 문제를 송부 받은 날로부터 정해진 기간 내에 준비서면 등을 제출
- 대회집행위원회는 서면 심사를 거쳐 본선 진출팀을 확정
- 민사팀 36개팀, 형사팀 36개팀 본선 진출(제6회의 경우)

본 선
- 본선 진출 팀에게 본선 문제를 송부
- 대진표 추첨을 통해 분야별 6개팀씩 묶어 6조로 나뉘어 진행.
- 대진표 추첨을 통해 팀의 지위 부여
  (민사의 경우 원고 또는 피고, 형사의 경우 검찰 측 또는 피고인 측)
- 경연 팀은 기간 내에 자신의 지위에 해당하는 화상자료(PPT) 제출.
- 각 조별 1위 팀은 결선 진출
- 변론은 쟁점의 정리, 주변론, 재변론, 재판장의 질문에 대한 답변 시간으로 구성.

결 선
- 본선 경연일 오후에 본선 결과에 따라 결선 진출 팀 발표
- 대진표에 따라 결선 경연 전에 결선 경연 팀에게 그 지위를 고지하고, 본선에서 제출된 상대방 서면을 교부 (결선문제는 본선 문제와 동일하나 본선 문제에 일부 설문을 변경하거나 쟁점을 추가 할 수 있음)
- 경연 분야별로 3개의 경연을 진행
- 결선에서는 PPT 자료를 사용하지 않고, 구두 변론 중심으로 재판부 질문에 대한 답변과 변론의 적절성 등의 평가 비중을 높임.
- 각 팀당 약 40분 간의 준비시간을 통해 상대방의 준비서면을 검토하고 추가 쟁점에 대한 답변 준비
- 변론은 쟁점의 정리, 주변론, 재변론, 재판장의 질문에 대한 답변 시간으로 구성.

Q. 상(常)의 종류와 수상 시 어떤 혜택이 있나요?

A. 결선에 진출한 팀에게는 기본적으로 개인별 상장 외에 팀 트로피와 팀 상금이 지급됩니다. 입상 팀원들에게는 법원에서 실시하는 심화실무수습 선발 우선권이 주어지며, 1,2,3위 조원들에게 개인별 PC가 제공됩니다.

1위	가인상	상금 500만원
2위	대한변호사협회장상(민사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상(형사팀)	상금 400만원
3위	법률신문사장상	상금 300만원
4위	평등상	상금 300만원
5위	정의상	상금 300만원
6위	자유상	상금 300만원
7위	소통상	본선에 가장 많은 팀을 진출시킨 로스쿨에게 시상
	민 · 형사 부문별 개인 MVP 각 1명	

가인상 민사 부문 수상팀_ 이화여자대학교 로스쿨

김민주(팀장) 강현주 김은아

Q. 팀 구성은 어떻게 했나요?

A. 대회를 위해 따로 팀을 구성했다기보다 원래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끼리 나가게 된 거예요. 팀워크가 중요한 대회이기 때문에, 서로를 잘 아는 사이에서 나갔던 것이 큰 도움이 됐어요. 또 서로의 의견을 존중했기 때문에 준비 과정에서도 갈등이 없었고요.

Q. 민사 부문을 선택한 이유가 있을까요?

A. 팀원 3명 모두 1학년이어서 커리큘럼상 형사소송법을 배우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1년간 배운 민법과 민사소송법을 바탕으로 민사 부문에 도전하게 됐습니다.

Q. 서면심사의 포인트는 무엇이고, 어떻게 준비하는 게 효율적인가요?

A. 서면심사 준비과정은 문제가 출제된 이후 예선은 5일, 본선은 15일 정도 주어지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따라서 문제가 제출된 당일에는 문제를 분석해서 쟁점을 도출해내고, 그 후 관련 판례와 논문, 문헌 등을 검색해서 목차를 구성했어요. 여러 번 퇴고를 할수록 서면의 완결성이 높아집니다.

Q. 본선과 결선,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A. 본선과 결선에서 대리하는 당사자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양 당사자의 입장을 모두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변론대회'이기 때문에 자신의 주장을 분명하게 전달해야 하고, 그러려면 명확하게 발음하고 속도가 너무 빨라지지 않도록 연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준비한 대본을 그대로 읽기보다는 자연스럽게 변론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반대 당사자가 주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논점에 대하여 반박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Q. 가인상을 받으리라 예측하셨나요? 수상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A. 이렇게 큰 상을 받으리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결과에 상관없이 대회 준비 과정을 통해 민사재판을 경험해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가인상을 수상하게 되어 정말 영광스럽습니다.

Q. 본 대회를 통해 배운 것이 있다면요?

A. 실제로 1심과 2심을 거쳐 대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과 유사한 사안이 출제됐기 때문에 비록 모의재판이지만 살아 움직이는 사건을 체험해볼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변호사로서 당사자를 대리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고도 진정성 있는 준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실제 재판정에서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 순발력 있게 반박하고, 재판부를 설득하는 가정 또한 중요하므로 법학 지식을 바탕으로 변론능력을 키우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Q. 경연대회를 준비하는 다른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팁이 있을까요?

A. 준비하기 전에는 막막하고 그 준비과정이 힘들긴 하지만, 지나고 나면 실무에 나가기 전에 학교에서 배운 것을 활용해 볼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이기 때문에 참가를 주저하는 분들이 있다면 우선 참가를 권하고 싶습니다.

가인상 형사부문 수상팀_ 부산대학교 로스쿨

이헌준(팀장) 김민수 박소민

Q. 형사 부문을 선택한 이유가 있을까요?

A. 2014학기에 2학기에 형사재판실무, 검찰실무, 경찰실무, 형사소송법 등 형사과목을 많이 수강하고 있었습니다. 또 가인 법정변론 대회도 학업의 연장선이라고 생각했고,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직접 재판과정을 통해 익히고, 이론과 실무를 동시에 경험해 볼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Q. 서면심사의 포인트는 무엇이고, 어떻게 준비하는 게 효율적인가요?

A. 짧은 시간 안에 큰 흐름을 정리하고 쟁점을 추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서면 문제 발표 이후 5일 안에 서면을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학업과 병행을 고려하면 시간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 팀은 첫 모임 전에 팀원 각자가 사실관계를 숙지하는 것을 전제로 만났고, 첫 모임에서부터 문제의 흐름을 정리하고 쟁점 파악에 주력했습니다. 서면 작성은 사실 관계를 파악해서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일목요연하게 표로 정리하는 것이 도움이 됐습니다. 이를 토대로 다시 쟁점을 확인하고 의견을 나누면서, 꼼꼼하게 서면을 수정하니 의견서 작성에도 도움이 됐습니다.

Q. 본선과 결선,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A. 본선의 경우 준비 기간이 3주 정도로 길었기 때문에 시간은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본선 및 결선은 검사의 의견서와 변호인의 변론 요지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이는 다른 각각의 결론을 얼마나 논리적으로 입증하는지가 평가의 요소가 됩니다. 특히 일관된 변론을 위해서는 서면을 논리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따라서 팀원 간 입장을 달리해서 각각 검사의 의견서와 변호인의 변론요지서를 작성하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팀원 간의 치열한 토론을 통해 서로의 논리적 약점을 공격하고 또 보완하는 방식으로 준비하면 좋습니다. 마지막 팁! 결선에서는 PPT 자료를 사용할 수 없고, 1시간 전에 추가 쟁점이 제시됩니다. 따라서 결선에서는 무엇보다 '변론'이 중요합니다.

Q. 대회를 준비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무엇인가요?

A. 문제에 대한 쟁점을 파악 하는 게 가장 어려웠습니다. 팀원 간의 토론을 거쳐 논리를 세워 나갔고, 관련 서적들도 꼼꼼하게 검토했습니다. 토론 과정에서 직접 피고인과 피해자의 입장이 되어보고, 동선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재현도 해 봤습니다. 어린이용 야구 방망이가 얼마나 위험한 물건인지 느껴보기 위해 직접 휘둘러도 보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체격과 체중의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해 보기 위해 의자에 올라서기도 하는 등의 체험을 통해 팀원들과 의견의 접점을 찾았습니다.

Q. 본 대회를 통해 배운 것이 있다면요?

A. 실제 변론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선보이는 시간이 아니라, 효율적으로 상대방을 설득시키고 납득할 만한 결과를 도출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몸소 체득할 수 있었습니다. 또 준비하는 동안 마치 세 명이 하나의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며 실제 사건을 처리하는 것은 같은 느낌이 들어서 재미있기도 했습니다.

Q. 경연대회를 준비하는 다른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팁이 있을까요?

A. 출전하게 되면 투자해야 하는 시간, 노력이 적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의 의미와 보상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법학지식이 많이 요구되는 것도 아니고, 주어진 쟁점에 대해 팀원들과 같이 조사하고 토론한다면 준비 과정에서도 큰 어려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창

스무 살 때 고향인 제주도를 떠나 관악구 신림동에서 15년을 지냈다. 그에게 '신림동 고시촌'은 집이었고, 제2의 고향이었다. 그러다 문득 뒤를 돌아보니 지나온 세월이 무색하게도 이뤄놓은 것이 없다고 느껴졌다. 그런 그에게 로스쿨은 새로운 삶을 향한 출발점 그리고 못 다 이룬 꿈의 노스텔지어가 되어 줬다. editor. 박소희

서울시립대학교 로스쿨 **문건협 학생** 인터뷰(6기)

사법고시로 잃어버린 **10년, 로스쿨 와서 찾았어요!**

10년간 사법시험을 준비했다고 들었어요. 로스쿨 진학은 언제 결심하게 됐나요?

사법시험 공부를 오래 했기 때문에 마무리를 짓고 싶었어요. 2차 시험을 4번 떨어졌는데, 합격 인원수는 점점 줄어들고 커트라인은 계속 올라가더라고요. 한 문제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사법시험 공부가 더 이상 무의미하게 느껴졌어요. 열심히 공부한다고 붙는 시험이 아니잖아요. 다들 열심히 하는데 그 중 소수만이 선발되고, 한 문제의 실수가 인생을 갈라버리니까요. 또, 계속 같은 공부에 매몰되니까, 무의미한 도박이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로스쿨에 와서 가장 좋은 점이 뭔가요?

저는 로스쿨 와서 인생 폈어요.(웃음) 고시 공부라는 게 굉장히 외롭거든요. 한번 외롭기 시작하면 헤어 나오지 못해서, 슬럼프가 자주 와요. 또 회의주의적인 생각도 굉장히 많이 들어요. '나는 지금 뭐하고 있나, 이대로 죽는 건가?' 뭐 이런 생각들이요. 그런데 로스쿨에 입학하니까, 고시 공부를 하던 시절에 배운 지식도 나름의 쓸모가 있는 거예요. 동기들과 함께 수업을 듣고, 공부도 같이 하니까 외로움을 느낄 틈도 없고요. 당연히 슬럼프도 없었어요!

로스쿨과 사법시험의 가장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사법고시는 속된 말로 '한방'이에요. 중간 평가가 없잖아요. 1년에 딱 한 번, 정해진 날 시험을 보는데 만약 전날 잠을 설쳤다면 완전 물거품이 되는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로스쿨은 계속해서 중간 평가를 받을 수가 있어요. 중간고사 성적이 나쁘면 기말고사를 잘 보면 되는 거고 꾸준히 실력 향상을 해서 계속 발전하는 본인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어요.

많은 로스쿨 중에서 시립대학교 로스쿨을 선택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사실은 나이가 많아서 고민이 많았어요. 그러던 중 시립대학교 로스쿨이 가장 정량으로만, 그러니까 객관적인 지표만으로 학생을 뽑는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실제로 들어와 보니, 학생들의 학벌이나 스펙보다는 객관적인 지표로 뽑았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들어요. 현재 7기에 74년생, 77년생 형님들도 계시거든요. 시립대 로스쿨로 오세요!(웃음)

오랫동안 사법시험 공부를 해서 로스쿨 수업이 무난할 것 같아요. 어떤가요?

수업이 따라가기 힘들 정도로 어렵지는 않아요. 그리고 걱정과는 달리 재밌는 수업도 많았어요. 명강의를 하시는 교수님들의 수업을 들으면, 정말로 '관점'이라는 것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교수님들께서 제가 알던 부분들을 더 넓게 이해시켜 주시고, 가르쳐 주시거든요. 특히 세법 과목은 로스쿨 입학 후에 처음 듣고 있어서 재밌어요.

로스쿨에서의 성적이 궁금해요.

작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1학기 때에는 2등으로 차석을 했고, 2학기 때에는 5등을 해서 통합 4등을 했어요. 그래서 1학기 때는 전액장학금, 2학기 때에는 반액장학금을 받았어요. 동기들 모두 열심히 하기 때문에 이 정도 성적이면 꽤 만족스러워요. 부끄럽지만 사법시험 공부를 할 때에는 부모님께 손을 빌렸었거든요. 그런데 로스쿨은 생각보다 장학금도 많이 주고, 또 시립대 로스쿨은 다른 로스쿨에 비해 등록금도 저렴하니까 만족하고 있습니다.

학회나 동아리 활동도 하나요?

세법연구회를 하고 있어요. 시립대 특성화 과목이 '조세법'이거든요. 졸업생들도 세법 관련 분야로 많이 진출하고 있고, 다른 로스쿨에 비해 세법 과목의 교육과정이 탄탄해요. 저는 아무래도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변호사시험에 합격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차라리 법학사가 아니면 자신의 전공도 있고 변호사 자격증도 있어서 활용도가 높지만, 저는 법학사라서 법밖에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만의 장점을 조금이라도 더 만들고 싶어서 세법연구회에서 공부하고 있어요. 학회에서는 선배들이 눈높이에 맞는 튜터링을 해주기 때문에, 수업을 들을 때에도 확실히 도움이 되고 정말 좋더라고요.

어떤 변호사가 되고 싶나요?

예전에는 꿈이 컸어요. 그런데 지금은 조금 소박해진 꿈을 꾸고 있네요. 맡은 사건에 성실하게 임하고 의뢰인을 실망시키지 않는 변호사가 되고 싶어요. 법조 직역의 일이 변호사에게는 단순한 업무일 수 있겠지만, 의뢰인에게는 인생의 전부일 수도 있거든요. 화려한 일을 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맡은 사건 하나 하나에 최선을 다하는 변호사가 되고 싶어요!

인생의 꿈이 있다면요?

직업적으로 성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정에도 충실한 삶을 살고 싶어요. 결혼을 하고 사회에 나갔는데, 가족과 일이 충돌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해도 결코 가족으로 방치하지는 않을 거예요. 성공의 기준을 연봉으로 본다면, 어느 정도 수입을 포기하더라도 나의 가족과 함께 있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물론 여자친구가 생기고 결혼을 하게 된다면 말이죠.(웃음) 창

문건협이 말하는 로스쿨 합격 노하우

보고 또 보고

자기소개서는 제출 마감일까지 미루지 말고 미리미리 작성해서 계속 수정하는 과정을 반복해야 한다. 여러 명에게 첨삭을 받는다면 금상첨화. 여러 번 읽고 또 읽어볼수록 자신을 잘 표현하는 문장을 찾아, 압축적으로 나타낼 수 있게 된다.

LEET 시험 당일, 과한 긴장은 오히려 독

리트는 단순히 외운 것을 쏟아내는 시험이 아니라, 머리를 굴려서 보는 시험이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 당일 긴장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약간의 긴장은 시험에 도움이 되지만, 과한 긴장은 오히려 머릿속을 꼬이게 할 수 있다. 실력 발휘를 위해서는 긴장하지 않는 연습도 필요하다.

면접을 위한 면접

면접을 볼 때 두 가지만 기억할 것! '자신감과 겸손함의 조화' 그리고 '솔직함과 자기PR의 조화'. 진실함을 갖고 면접에 임하되, 자신감과 겸손함을 가져야 한다.

로스쿨에 진학한 첫 해의 나이 서른일곱. 동기 중 최고령의 나이였지만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해, 국선전담변호사로 활약 중인 정혜진 변호사. 통성명을 하고 명함을 건네자, 정혜진 변호사가 머쓱하게 웃으며 말한다. "어쩌죠. 저는 영업을 안 하니까 명함이 없어요. 대신 제 휴대전화번호 알려드릴게요." 공손한 말투에 진중함이 배어있다. 최근 각종 언론을 통해 '장발장법 폐지의 주역'으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지만, 그녀는 말한다. 운 좋게도 타이밍을 잘 잡았을 뿐이라고. 봄날의 태양처럼 따뜻하게 빛나는 정혜진 변호사를 만나 봤다. editor. 박소희

"누군가에게 큰 열매가 될 수 있도록 씨앗을 뿌리는 사람이 되고 싶어"

정혜진 국선전담변호사

로스쿨에 간 만학도

로스쿨에 입학하기 전 정혜진 변호사의 직업은 기자였다. 무려 15년 동안이나. 쉽게 범접할 수 없는 기자 경력을 뒤로하고 불현듯 로스쿨 입학을 결심한 까닭이 궁금해졌다. 그러자 처음부터 법을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로스쿨에 진학한 것은 아니라는 뜻밖의 대답이 들려온다.

"기자 일을 하고 있었는데 대략 5년마다 슬럼프가 찾아 왔어요. 슬럼프 극복을 위해서 해외 연수도 다녀왔었는데, 그 와중에도 언론의 환경은 점점 더 열악해지는 거예요. 종이 신문의 존재는 점점 낮아지고, 열심히 일을 해도 지치는 시기였어요. 충전하는 시간을 좀 가져야겠다고 생각했는데, 마침 로스쿨 제도가 도입됐다고 하더라고요. 타이밍이 좋았죠!"

그렇게 그녀는 재충전을 위해 강원대학교 로스쿨에 입학했다. 기자로 근무했을 때 특별히 환경에 관심이 많아 책도 여러 권 냈기 때문에, '환경법'이 특성화 과목으로 지정되어 있는 강원대 로스쿨은 그녀에게 안성맞춤이었다. 또 장학금도 많이 줬으니, 그야말로 그녀에게는 최고의 학교였던 셈이다. 정변호사는 "직장생활을 하다가 학교에 가니까 정말 좋았어요. 물론 당시에 힘들었던 때도 있었겠지만, 전반적으로 행복했어요."라고 말하며 로스쿨 재학 시절을 회상했다.

"법학을 전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런데도 공부가 그렇게 재미있더라고요. 일단 공부에 재미가 붙으니까 시간을 많이 투자하게 됐어요. 즐기는 사람을 당할 수 없다는 공자 말씀도 있잖아요. 법학을 전공했던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을 다시 학습하는 거라서, 저처럼 즐기지는 못하는 것 같았어요."

많은 이들이 '공부에는 때가 있다'고 말하지만, 정변호사는 오히려 모두들 늦었다고 말한 시기에 법학 공부를 시작한 것이 더 도움이 됐다고 말한다. "물론 나이 들어서 공부를 하면 빨리 외우지는 못해요. 하지만 더 쉽게 이해를 할 수는 있죠. 법적인 문제는 대부분 '갈등'이거든요. 기자는 매일 갈등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다보니 아무래도 갈등의 원인들을 더 쉽게 파악할 수 있었어요." 법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나이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

인생 제2막, 국선전담변호사의 길

로스쿨을 졸업한 후, 정변호사는 서울 고등법원 재판연구원(로클럭)으로 2년 동안 근무한 뒤 국선전담변호사의 길을 선택했다. 수많은 길 중에서 국선전담변호사를 선택한 특별한 이유라도 있던 것일까. 결심한 이유를 묻자 정변호사가 답한다.

"돈 버는 일에 서툴러서, 아무래도 영업보다는 공공기관이나 국가를 위해 일할 수 있는 곳으로 가고 싶었어요. 저희 집도 전형적인 서민 가족이었고, 제가 기자 생활하면서 어려운 형편에 있는 분들도 많이 만났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형사 피고인을 도와주는 일이 저에게 맞겠다고 생각했죠. 큰 뜻을 품고 국선전담변호사의 길을 선택한 것은 아니에요."

현재 정변호사는 수원지방법원 단독재판부 사건 중 일부를 전담하고 있다. 불구속 피고인들은 사무실에서 상담하고, 구속 피고인들을 만나기 위해서는 구치소에 직접 방문한다.

"일주일에 많으면 두 번 정도 구치소에 가요. 구치소를 제집 같이 드나드는 사람 중 한명입니다.(웃음) 그런데도 국선전담변호사라는 직업의 장점은 정말 많아요. 돈을 받고 위임되는 것이 아니라 공적인 입장에서 피고인에게 객관적인 이야기를 전달하는 거잖아요. 공적인 업무를 하다 보니 보람을 많이 느끼죠. 아무래도 사선 변호사들보다는 스트레스를 덜 받기도 하고요. 또, 억울한 피고인이 무죄를 받았을 때, 무죄까지는 아니더라도 제 이야기를 듣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고 감사하다고 말씀하실 때 큰 보람을 느껴요."

업무를 할 때 가장 힘든 점이 무엇인지 묻자, 그녀가 답한다. "사실 크게 힘든 건 잘 모르겠어요. 다만 합리적인 대화가 안 되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보면, 근본적인 문제는 지금 발생한 이 사건이 아니라 이 분의 삶에 뒤엉켜 있는 실타래죠. 저는 형사 사건의 변호인일 뿐이기 때문에 그들의 삶의 근본적인 문제까지는 해결해 줄 수 없어서 안타까울 따름이에요." 그녀의 대답 속에서 피고인을 위하는 진정성 있는 마음이 느껴졌다.

굿바이, 장발장법!
헬로우, 마이드림!

30년도 훌쩍 넘은 법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았다. 그동안 상습 절도에 있어서 광범위하게 적용되던 기본 법조항의 문제를 예리하게 집어내, 위헌 결정까지 받게 한 장본인인 정변호사. 정변호사에게 소위 '장발장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5조의4 1항'이 헌재의 전원일치로 위헌 판정을 받기까지의 과정을 물었다.

"장발장법은 상습적으로 절도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된 법을 말해요. 그런데 형법에 절도죄로 처벌하는 조항이 있어요. 상습으로 절도를 하면 그 형법의 1/2까지 처벌하는 조항이죠. 반면에 특가법은 상습으로 절도를 한 사람은 3년 이상에 처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 있어서 일반법보다 특별법을 적용할 수는 있지만, 형법의 상습절도와 구성요건이 같은 거예요. 이름은 특별법인데 특별한 요건이 없었던 거죠. 이미 2014년 4월에 헌법재판소에서 특별한 가중요건 없이 일반법과 똑같은 구성요건을 단지 가중하기 위한 조항은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와 있었어요. 제가 당시에 특가법 상습 절도 사건 하나를 맡고 있었는데, 가만히 살펴보니 헌법재판소의 위 법리에 비춰보면 이 사건의 적용 조항도 위헌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게 됐어요."

소위 '장발장법'으로 불리던 법을 폐지시킨 장본인이지만, 자신보다는 자신의 위헌제청 신청을 받아들여준 판사의 판단이 더 중요하다며 손사래를 치는 그녀다.

"마지막 지푸라기 하나가 낙타의 등을 부러뜨린다.'라는 속담이 있잖아요. 이 조항이 위헌 결정을 받기까지 많은 법리가 쌓이고 쌓였고, 선배 법조인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저는 정말 타이밍 적절하게, 위헌 신청을 한 일밖에 없어요.(웃음)"

거창한 꿈을 꾸거나 철저한 계획을 세우며 살지는 않았다. 다만 매 순간을 진심으로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온 정변호사다.

> 여기서 잠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5조의4(상습 강도 • 절도죄 등의 가중처벌) 1항은 무슨 내용?
>
> ■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 단순위헌, 2014헌가16, 2015.2.26.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된 것) 제5조의4 제1항 중 형법 제329조에 관한 부분, 같은 항 중 형법 제329조의 미수죄에 관한 부분, 같은 조 제4항 중 형법 제363조 가운데 형법 제362조 제1항의 '취득'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기자로 재직하던 시절 환경에 관심이 많아 관련된 책도 몇 권 발간했었다. 로스쿨을 졸업한 후에는 본인이 겪은 시행착오를 후배들이 겪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후배들을 위한 수험서를 내기도 했다.

"아마 로스쿨 학생이면 많이 알 듯 한데, '변호사시험 기록형 대비 수험서(QT시리즈)'라는 수험서를 썼어요. 제가 겪은 시행착오를 줄여주고 싶은 마음에서 만든 거죠. 환경 도서, 로스쿨 수험서를 내긴 했지만, 언젠가는 제가 하는 일에 대한 글도 쓰고 싶어요. 아직은 막연하지만 책을 내서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소통하는 일은 놀라울 정도로 멋진 일이거든요!"

인터뷰의 끝자락에서 정변호사가 꿈꾸는 사회는 어떤 사회인지 물었다. 그러자 그녀가 세상에서 가장 선한 얼굴로 답한다.

"서로 돕는 사회요. 좋은 사회는 모르는 이에게서 빚을 지고, 받은 빚을 누군가에게 도움으로 되갚아주는 사회라고 생각해요. 저도 누군가에게는 큰 열매가 되는 씨앗을 뿌리고 싶어요." 창

※ 정혜진 변호사가 알려주는 '국선전담변호사'

Q. '국선변호제'는 무엇이며, 국선전담변호사의 주요 업무는 무엇인가요?

A. '국선변호제'는 형사 절차에서 피고인에게 방어권을 보장해 주기 위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여력 없는 피고인을 대신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선임해주는 제도입니다. 국선전담변호인은 말 그대로 다른 사건을 수임하지 않고 국선변호 사건만 전담하는 변호사입니다.

Q. 국선변호인과 국선전담변호인이 다른 개념인가요?

A. 기본적으로 큰 틀에서의 국선변호인이 있습니다. 국선변호인의 반대는 당연히 사선변호인이겠죠? 국선전담변호사가 아닌 '국선변호인'은 사선 변호사로서의 사건도 수행하며, 국가에서 배당해주는 국선 사건도 함께 처리합니다. 반면, '국선전담변호사'는 전적으로 국가에서 맡기는 국선 사건만을 전담합니다.

Q. 한 달에 정해진 사건의 수가 있나요?

A. 단독재판부 사건의 경우 한 달에 평균 25건~30건의 사건을 맡습니다. 간혹 국선전담변호인을 선임해줘도 도움을 원하지 않는 피고인도 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시간을 적절하게 안배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합의재판부 사건은 사건이 좀 복잡하니까 그보다 적은 20건 정도를 맡습니다. 약식명령을 받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신청해서 진행되는 이른바 '고정' 사건은 30건 이상의 사건을 받기도 합니다.

Q. 정해진 임기가 있는 건가요?

A. 국선전담변호사는 2년 계약의 위촉직입니다. 위촉 기간이 끝날 때 재위촉을 두 번까지 받을 수 있어 최장 6년까지 근무가 가능합니다. 물론 재위촉을 받으려면 주어진 사건들을 성실하게 소화해야겠지요.

Q. 국선전담변호사를 준비하는 후배들에게 팁을 주세요!

A. 사실 저도 국선전담변호사가 되기 위해 큰 준비를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네요. 우선 전형은 총 두 단계로 나뉩니다. 서류전형에서는 성적, 자기소개서 등이 포함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량적인 요소는 골고루 갖춘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성적이 나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면접의 경우에는 사실상 복불복입니다. 저의 경우 형사법과 관련된 질문은 받지 않았어요. 경력이 조금 특이해서인지 과거 경력에 대한 질문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형사법은 숙지해 놓아야겠지요.

Q. 국선전담변호사에게 가장 필요한 자세는 무엇인가요?

A. 국선전담변호사가 하는 일은 변호사시험에 합격했다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직업이 본인에게 맞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간혹 이 직업이 본인과 맞지 않아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특히 국선전담변호사는 피고인의 이야기를 잘 들어줘야 하는데, 성적이 좋고 형사법 법리를 많이 안다고 그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국선전담변호사라는 직업의 특성상, 논리가 없고 합리적 대화가 불가능한 분들을 상담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본인에게 적합한 직업인지 판단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로스쿨, 막연히 비난하기보다 힘을 모아 뿌리를 내리도록 해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신영호 이사장**

2009년 개원을 시작으로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이 출범한지 올해로 7년이 되었고, 1기~3기까지 약 6,000명의 법조인이 배출됐습니다. 이들은 다양한 직역으로 진출해 법률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주권의식 함양이라는 큰 성과도 이루어냈다고 자부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일부 정치인들은 국가의 바람직한 사법제도의 발전과 정착을 도외시 한 채 사법시험만이 '희망의 사다리'라는 주장을 하고 있으며, 학계에서도 로스쿨을 운영하는 측과 운영하지 않는 비로스쿨 측의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사법시험을 통해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도 변호사가 될 수 있지만, 로스쿨은 등록금이 비싸서 사회계층 이동의 기능을 못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로스쿨 제도에 대한 오해와 편견에서 비롯된 주장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로스쿨 제도야말로 희망의 사다리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고, 이는 객관적인 데이터로 나타나고 입증되고 있습니다.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많은 학생들은 소위 '신림동 고시촌'에서 생활하며, 시험 준비 기간이 5년에 달하고 평균 합격률도 3~5%에 불과합니다. 그렇기때문에 사회 · 경제적 취약자는 이렇게 불확실한 미래속에서 중도 포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반면 로스쿨은 매년 특별전형을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으며, 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게는 전액장학금은 물론이고 생활비까지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스쿨 입학생과 사법시험 합격자의 매년 평균 출신대학 수를 비교해보면, 로스쿨이 사법시험의 약 2.2배로 진입 장벽이 훨씬 낮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스쿨의 경우 2009년부터 2012년까지 104개의 국내대학, 70여개의 국외대학 출신자가 입학했지만, 사법시험의 경우 76개의 국내대학에서 합격해, 평균 95개 대학에서 입학한 로스쿨보다 훨씬 더 적은 학교에서 합격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표1 참고)**

또한 로스쿨이 설치되지 않은 법과대학의 학생들이 2012학년도에는 전체 입학자 중 8.78%에서 2015학년도에는 14.95%로 증가했으며, 이는 로스쿨로의 문호가 더 넓게 확대되고 증가됐음을 의미합니다. 즉, 로스쿨은 단연 로스쿨의 문제뿐만 아니라 비로스쿨 법과대학과의 상생 그리고 대한민국의 법학 발전을 위해서도 힘쓰고 있음도 알 수 있습니다. **(표2 참고)**

특히 '지방대학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해 지방대학교 출신도 로스쿨에 입학할 수 있어, 사법시험 시절보다 법조인으로의 진입장벽이 훨씬 더 낮아졌음을 객관적인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원,제주: 입학정원의 10% 이상 / 나머지 23개교: 입학정원의 20% 이상 입학] **(표3 참고)**
뿐만 아니라 로스쿨 제도를 통해 종래에는 변호사가 진출하지

표1) 2009-2012년 로스쿨입학생과 사법시험 합격자의 매년 평균 출신대학 수 비교

구분	국내대학	국외대학
로스쿨 입학생	104교	70교
사법시험 합격자	76교	38교

표3) 2015학년도 지방대학 법학전문대학원 지역균형인재 선발현황

입학정원	선발 인원	비율
900명	180명	19.89%

표2)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생 중 법학계열 대상자 출신현황

	2012학년도	2013학년도	2014학년도	2015학년도
법학사 선발인원	1,128명	1,157명	1,021명	910명
로스쿨교 출신	1,029명	1,038명	931명	774명
비로스쿨교 출신	99명	119명	90명	136명
비로스쿨교 출신 비율	8.78%	10.29%	8.81%	14.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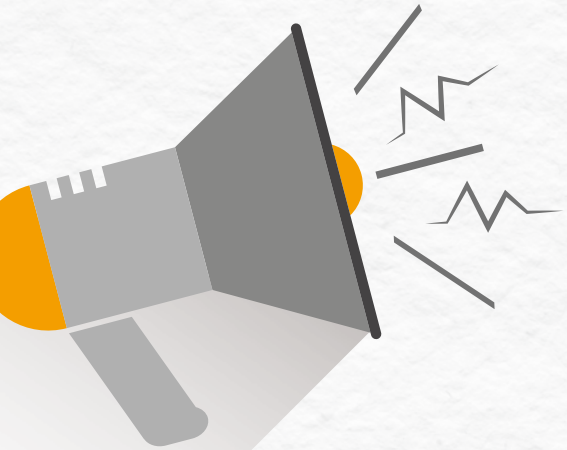
않았던 다양한 영역까지 변호사들이 진출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중소기업, 지방자치단체는 물론이고 시 · 군까지 변호사들이 진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로스쿨 제도를 통해 다수의 변호사들이 배출되고 있고, 종래보다 변호사의 문턱이 낮아져 더 많은 서민들이 합리적인 가격에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법률시장 완전 개방을 앞둔 상황에서 앞으로는 국내와 해외의 로펌들이 더욱 치열한 법률서비스 경쟁을 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외에 나가 있는 수많은 한국기업과 함께 국내 로펌의 해외진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국내의 변호사들도 세계로 눈을 돌려 국제 시장에 진출해야 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 기업이 미국 기업과 사업을 추진할 때, 한국 로펌이 미국에 있다면 사업 진행이 보다 수월할 것이며, 이는 즉 한국 로펌만이 활용할 수 있는 마켓이 분명이 있고 이를 잘 공략한다면 승산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다가오는 법률시장 개방을 위해서도, 통일을 대비해서라도 우리나라의 변호사들은 더욱 많이 양성되어야 하며, 현재로서는 로스쿨을 통해서 변호사를 양성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길이라고 생각됩니다.

사법시험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오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 로스쿨을 설치했고, 변호사시험 제도로 왔습니다. 어느 제도든 문제가 있기 마련이고, 문제가 발견됐다면 개선을 하고 수정을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현재 법조계가 앓고 있는 몸살은, 단연 법조계 문제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전반의 경기가 침체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막연히 제도를 탓하기 보다는, 어떻게 하면 문제를 합리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을까 고민하며 중지를 모아 해결해야 할 시점입니다. 창



변호사시험과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현실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학생협의회

1. 들어가며

금년도 4월 10일에 제4회 변호사시험의 합격자가 발표되었다. 해마다 이 즈음에는 뜨거운 감자로 대두되었던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결정방식과 관련하여 '자격시험화 방안', '합격인원 증원'등의 문제는 언제까지 향후 풀어야 할 과제로만 남겨 둘 수는 없다. 꿈을 안고 공부하는 7,200여명의 로스쿨생들에게 너무 가혹한 일이기 때문이다. 이에 전국법학전문대학원학생협의회(이하 '학생협의회'라 한다)는 이와 관련 담론을 펼치고자 한다. 이에 관한 논의는 이미 2013년 제2회 변호사시험의 발표에 즈음하여 당시 학생협의회가 변호사시험 합격률 책정과 관련한 입장을 발표한 바 있는데, 이하의 논의는 위 입장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당시의 자료를 참조하였음을 밝힌다.

2.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설립취지 및 현실의 상황

가. 법학전문교육을 통한 변호사 자격 부여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는 소정의 법학전문교육을 받은 자들에게 변호사 자격을 부여하기 위해 태어났다. 전문적인 법조인 양성 교육을 통해 법조인의 자질을 갖추도록 하고, 소정의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하였는지의 판단을 통해 변호사의 자격을 부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법학전문대학원의 3년 과정을 정상적으로 마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호사의 자격을 부여받는 것이 자연스럽다.

나. 법학전문대학원 원우들의 현실

과연 올해 7번째 입학생을 맞이한 법학전문대학원은 현실은 어떠한가? 누군가에게는 그 자연스러움은 먼 하늘 아래 아득하게 빛나는 장밋빛 꿈이 되어 버렸다. 5, 6, 7기의 원우들은 한차례 경쟁을 뚫고 법학전문대학원에 입성했으나, 다시금 1, 2학년 때는 취업스펙을 쌓기 위해 과도한 학점 경쟁을 펼쳐야 하고, 3학년 때는 소위 '로3(로스쿨 3학년생의 줄임말로, 고3에 빗댄 로스쿨생 사이의 신조어이다)'이라는 고통의 시간을 거쳐야 한다. 치열하게 수험생활을 하면서 좁은 문을 통과해야 하는 부자연스러운 삶 속에서 학업을 이어가고 있다. 우리 원우들이 제대로 된 법학전문교육을 받고 있는 것인지 변호사시험 합격을 위한 공부에 매몰되어 있는 것인지 돌아볼 일이다.

3. 변호사시험, 자격시험인가? 선발시험인가?

변호사시험법[시행 2011.7.25.] [법률 제10923호, 2011.7.2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변호사에게 필요한 직업윤리와 법률지식 등 법률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검정하기 위한 변호사시험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변호사시험 시행의 기본원칙) 변호사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법학전문대학원"이라 한다)의 교육과정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시행되어야 한다.

가. 변호사시험법

변호사시험법 제1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변호사시험은 변호사에게 필요한 직업윤리와 법률지식 등 법률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검정하기 위한 것이다. 변호사시험의 태생적인 모습은 자격시험이다. 변호사시험은 법학전문대학원에 합격하여 소정의 법학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 3년간의 과정을 성실하게 이수하였을 때 변호사의 자격의 부여하는 시험이다.

나. 법무부의 입장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출범 초기인 2010. 10. 7. 합격자 결정방법을 정하면서 "법무부는 …(이하 중략) 법학전문대학원의 과정을 충실히 이수하여 변호사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갖춘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의 경우 변호사 자격을 무난히 취득할 수 있도록 변호사시험을 자격시험으로 운영해 나간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다. 중간결론

변호사시험법, 초기 법무부 변호사시험관리위회의 입장, 법학전문대학원 원우들의 변호사시험에 관한 자연스러운 인식 등에 비추어 보면 변호사시험은 '선발'시험이 아닌 '자격'시험이다. 그러나, 이번 제4회 변호사시험 이후부터는 '자격'시험이 아니라 사실상 선발시험을 준비하는 기이한 현상은 과연 '제도의 변천에 따른 순응'으로 보아 체념해야만 하는가?

4. 변호사시험합격자 결정방식의 타당한가?

변호사시험법[시행 2011.7.25.] [법률 제10923호, 2011.7.25., 일부개정]

제10조(시험의 합격 결정) ① 시험의 합격은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가. 결정방식의 원칙

변호사시험법 제10조는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시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 취지를 충분히 고려할 것을 명령하고 있다. 과연 제3회 변호사시험까지의 "입학정원대비 75% 합격" 기준은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 취지를 충분히 고려한 것인지 의문이다.

나. 기존 결정방식의 딜레마

제3회 변호사시험까지의 입학정원대비 75% 합격의 기준은 올해도 크게 변하지 않았다. 그러나,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정원은 대략 2,000명으로 입학정원대비 75% 합격자 매년 1,500이상이다.

수치상으로 그럴 듯해 보이는 합격률이지만, 매년 불합격자가 누적되고 있어 응시자 대비 합격률(실질적 경쟁률)은 현저하게 하락하고 있다. 변호사시험은 응시 기회를 총 5회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결국 응시자가 일정 숫자로 수렴하게 되는데, 2014년 경에는 6,000명이 넘는 수치로 수렴하게 된다. 만일 현행대로 '입학정원 대비' 합격률을 고수하는 경우 예상되는 응시자 대비 합격률 기준은 결국 24%의 합격률로 최종수렴하게 된다. 변호사시험 주관부서인 법무부는 매년 입학정원대비 75%의 합격자를 배출한다고 제도적 취지에 부합한다는 입장이지만, 시험의 당사자들이 응시자 대비 합격률 기준을 따라 실질적 경쟁률을 판단하는 것은 경쟁시험하에서 상식적인 발상이다.

입학정원 대비 합격률을 고집하는 현행 합격자결정방식은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으로서의 본질을 침해하여 '선발' 시험으로 변형을 하는 것이고, 사실상 사법시험의 제도적 상황하에서 발생하던 똑같은 문제를 양산하게 되는 것이다.

다. 향후 예상되는 문제점

현행 변호사시험의 결정방식은 실질적인 경쟁률, 즉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원우들을 체감하는 합격률이 매우 낮다는 원초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어 여러가지 문제점들을 낳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첫째, 변호사시험의 목적이 형해화되어 사실상 선발시험으로 운영되므로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이념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각 법학전문대학원들이 교육제도 개선을 통한 양질의 교육보다는 변호사시험 합격에 적합한 인재들을 찾는 데 급급하고, 법학전문대학원 원우들 역시 실무 위주의 전문과목과 특성화 과목보다는 수험대비과목이나 수험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과목만을 선호하는 양상을 보인다.

둘째,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해도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 소위 '변시 낭인'(옛 '고시 낭인'에 빗대어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자들을 일컫는 말입니다)이 속출하고 있다는 말이 들리고, 과거에 비해 법학전문대학원에 우수한 인재들이 유입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셋째,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자체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 국민들은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에 대한 자질이나 능력에 의문을 가지게 되고, 2017년 폐지 수순을 밟고 있는 사법시험제도의 존치 움직임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넷째, 우수한 청년들이 오랜 기간 동안 고시에 몰입하느라 국가적인 인력 낭비를 초래하던 사법시험의 폐단을 막고자 시행된 변호사시험제도가 오히려 그 폐단을 다시금 양산하는 형국이 되고 있다. 변호사 양성과정을 정상적을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사시험에 불합격한 원우들이 변호사시험 준비를 위해 몇 년을 더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다.

라. 중간결론

이와 같이 현행 변호사 시험결정방식은 변호사시험의 근본취지를 형해화하고,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의 비정상화를 가져 오며,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자체에 대한 불신과 오해를 가져 올 수 있고, 고시제도의 폐해를 고스란히 반복한다는 점에서 타당하지 않다.

아울러 기존의 합격자 결정방식은 언제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했느냐에 따라 변호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달리 하여 향후 법조인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형평상 불이익을 주어 평등권침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점차 합격자 인원을 증원하여 이와 같은 폐해들을 예방하는 적극적인 제스쳐가 필요하다.

5. 결론에 대신하여

가. 어떤 이는 어린 시절 꿈꾸던 법조인의 꿈을 펼치기 위해, 어떤 이는 오래 시간 못다 이룬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이는 더 나은 내일의 삶을 위해 법학전문대학원이라는 아름다운 숲에서 맑은 숨을 쉬고 있다.

꿈의 나무들이 노력을 수고를 다하였지만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숲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법학전문대학원이라는 아름다운 숲은 혼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법조계 및 사법연수원과 연계한 실무교육의 내실화, 교원들과 학생들이 공감할 수 있는 수준 높은 법학교육체계의 확립, 기초법 교육과 법조윤리의 교육의 효과적인 운용, 국민들과 소통하고 신뢰받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축적, 국민과 사회의 책망과 요구의 겸허한 수용을 통한 체계적인 로스쿨 운영 등 내부적 손실과 끊임없는 제도의 혁신이 요청된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결정방식과 관련하여 법조인 배출인원 확대에 대한 국민과 사회의 요구가 늘어날 것이다.

나. 지금 우리 법조계는 하나가 되어 청빈한 사도법관 김홍섭 판사의 탄생 100주년을 축하하며 그 삶과 정신을 기리고 있다.

법조인들이 같은 곳을 바라 보고 같은 생각을 하며, 서로 신뢰하고 존중하는 미덕을 세우고, 온몸으로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받는 분위기가 되었으면 한다. 우리 법조계가 사법시험폐지 수순과 사법시험 존치 움직임, 사법연수원출신과 로스쿨 출신의 이원적인 대립구도가 사라지고,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는 미덕들이 넘쳐나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이 글의 결론에 대신한다. 창

로스쿨 블루스 : 우리가 잊지 말아야할 것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명예기자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6기) **김하영**

> 66
> '나'라는 사람이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존재라는 점을 잊지 않고 기억했다면, 제가 남들보다 좀 느리다고 해서 마음이 그토록 조급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99

로스쿨에서의 첫 해를 보내고 있거나 혹은 그 시간을 이미 지나온 분들께 이 편지를 띄워봅니다. 혹시 너무 바쁘고 여유가 없다면 이 글을 그냥 지나치셔도 좋아요. 사실 우리 모두는 이것 말고도 읽어야만 하는 것들이 차고 넘치잖아요. 그 산더미 같은 읽을거리들 위에 제 서투르고 모자란 글까지 얹어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과적(過積)은 언제나 위험하니까요.

저는 그저 '로스쿨에서의 첫 해 동안 겪은 시행착오(!)'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을 뿐입니다. 자기PR에 힘써도 모자랄 이 시대에 '그런' 걸 말해도 좋을까 약간 걱정도 되지만, 그래도 누군가에게는 이 얘기가 작은 위로를 건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자판을 두드려봅니다. 단 한사람일지도 모르지만 그 누군가가 "아, 나만 힘든 건 아니었구나!"하는 묘한 안도감을 얻길 바라요. 그리고 저 역시 제 경험을 글로 풀어놓으면서 "내가 잠시도 쉬지 말고 더 열심히 했어야 하는데!"하는 강박에서 더 자유로워지기를 바라봅니다. 저는 처음 접해 보는 게 너무 많았습니다. 비법학사라서 그랬을까요, 남들보다 조금 늦게 시작한 공부라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둘 다 때문이었을까요? 제겐 법학 그 자체뿐 아니라 법학 공부의 방법론 역시 낯설었습니다. 덕분에 저는 입학하고 나서 한동안 '제가 무엇을 모르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했던가요, 공부의 방법은 몰랐지만 개강 직후 제 의지만큼은 하늘을 찌를 기세였답니다. 공부시간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애를 썼지요. 밥 먹는 시간도 얼마나 아깝던지 아침식사는 거르거나 등굣길에 따뜻한 음료를 마시는 걸로 때웠고 점심은 빈 강의실에서 편의점 음식으로 대충 해결했습니다. 저녁식사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공부방 책상에서 홀로 먹었고요. 혼자 밥을 먹어도 심심하진 않았습니다. 읽을거리가 늘 함께 했으니까요. 새로 뽑은 대법원 판례는 마치 밑반찬처럼 매 끼니마다 밥상에 올랐습니다. 거의 늘 새벽에 잠들고 아침에 일어났기 때문에 '오늘밤'은 사실상 '내일 새벽'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이었습니다. 어제와 오늘, 내일의 경계는 점점 모호해졌고 제 삶은 공부를 하는 시간과 그렇지 않은 시간, 두 가지로만 구분되기 시작했고요. 아침에는 커피를 빈속에 들이부어도 잠이 깨질 않는데 새벽에는 자려고 누워도 눈이 감기질 않고, 가방 속엔 각종 영양제와 소화제, 종합감기약, 파스 같은 게 늘 굴러다녔죠. 저는 이 모든 것을 (제 멋대로) '기본권의 자발적인 박탈'이라고 불렀습니다, 자발적이기는 한데 어딘지 모르게 '포기'보다는 '박탈'이 어울린다고 생각하면서요.

물론 이런 삶의 패턴이 저만의 것은 아니었어요. 늘 친절한 표정을 잃지 않는 어느 동기가 전해준 자조적인 유머가 문득 생각납니다. 보통은 "학교 다녀오겠습니다!"라든지, "회사 다녀오겠습니

다!"라고 인사하며 살아가는데 우리는 내내 학교에 있다가 "얘들아, 나 집에 좀 다녀올게!"하며 살고 있다는 얘기에 한참 웃었지요. 시험기간에 동기들끼리 주고받은 블랙 유머도 마침 떠오르네요. "우리 지금 이렇게 잠도 안자고 열심히 공부하면 좋은 변호사가 될 수 있겠죠?" "그럼요! 좋은 변호사가 되어서 서울의 찬란한 야경에 일조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이 유머들이 재미있다고 생각해 (예능PD가 직업인) 친구에게 전해줬는데 "내가 어디서 웃으면 되니?"라는 면박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방금 유머에 '피식'하고라도 웃은 사람이 있다면 아마도 '우리' 중 한 사람이라는 데 한 표 던지죠.

어쨌거나 다시 제 얘기로 돌아오면,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당시 제 일과는 책상 앞에서 스스로의 무지(無知)를 끊임없이 재발견하는 것으로 마무리되곤 했어요. 예를 들자면, 처음엔 무작정 공부에 덤벼요. 그리고는 법전, 판례, 교과서, 필기, 각종 수험서들의 방대한 분량에 좌절하죠. 그래도 그걸 꾸역꾸역 다 봤는데 시험 결과는 영 신통치 않고. 그래서 공부방법이 잘못됐다는 걸 깨닫죠. 그리고 그때에서야 '그 어떤 교재나 필기보다도 우선 법전과 친해져야한다'는 너무나 기초적인 정보를 몰랐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이어서 '어떻게 해야 법전과 친해질 수 있는지를 모른다'는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고, 또 그 다음에는 '조문을 중심으로 공부하는 여러 방법 중에서 어떤 게 나와 가장 잘 맞는지를 여전히 모르는' 자신을 보는 거에요. 조문의 내용은 그 다음 문제였어요. 그래서 로스쿨에 입학한 이후, 저는 날마다 길을 잃은 듯한 느낌에 시달렸습니다. 비법학사인 저는 법학이라는 학문 앞에서 '초행길, 그것도 장거리 운전에 나선 초보운전자' 같았어요. 연료가 바닥을 드러낼 때까지 전력 질주를 해도 목적지까지 가지 못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보다 더 힘든 건 겨우 목적지에 도착했다고 생각하고 고개를 들어보니 전혀 엉뚱한 곳에 와 있을 때였어요. 최선을 다해 달리는 것 때문이 아니라 '내가 지금 과연 잘 하고 있는 건지' 확신할 수 없다는 점 때문에 숨이 턱 막혀오곤 했지요.

그런데 제가 지금 이 일련의 이야기들을 전부 과거형으로 쓰고 있다는 것, 혹시 눈치 채셨나요? 아마 제게 1년 사이에 법학 실력이 급상승했느냐고, 그래서 이제는 여유를 찾은 거냐고 묻고 싶으실 것 같네요. 그에 대한 대답은 "조급증은 내려놓았고 실력은 꾸준히 늘길 바란다"가 적당할 듯싶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별로 바뀐 건 없지만) 제 마음가짐이 달라진 거죠.

뜬금없는 얘기입니다만 저는 씨 뿌린 밭 구경하기를 좋아합니다. 마른 씨앗에서 살아있는 새싹이 나오고 자라나서 열매를 맺는 과정에 온 우주의 창조신비가 담긴 것만 같아서요. 가장 신기했던 건 '같은 날 파종한 씨앗도 발아하는 시점이 제각각 다르다'는 점입니다. 왜 어떤 씨앗은 좀 더 먼저 싹이 트고 왜 어떤 건 한참 지난 뒤에야 떡잎을 펼치는 걸까? 이 의문은 한동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표준화된 산업사회에 길들여진 저로서는 풀기 어려운 문제였지요. 씨앗을 생명력 있는 존재로 대하지 않고 '식물이라는 결과물을 내기 위한 투입물'로만 여긴 탓입니다. 모든 생명체는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존재들이고, 이렇게 서로 다른 존재들이 서로 다른 속도로 환경에 반응하는 건 지극히 당연한 일인데 말입니다. 이렇게 저는 (찰리 채플린의 영화 〈모던타임즈〉에 출연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구시대적인 마인드로 스스로를 소외시키면서 로스쿨에서의 첫 해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루에 소화할 수 있는 학습량이 얼마인지는 살피지도 않고 "오늘은 여기까지야! 이거 다 보기 전엔 자리에 누울 생각 마!"라고 스스로에게 우격다짐을 했고요, 컴퓨터에 데이터 입력해두듯 밤을 새워 머릿속에 지식을 구겨 넣었습니다. 물론 만성적인 수면부족 때문에 저의 전두엽은 종종 '저장 실패'를 외쳤고 몸도 마음도 곧 고장나버렸지요, 마치 기계처럼. 이제 편지를 슬슬 정리해야할 때가 됐네요. (이럴 때 질문하면 늦게 끝나는 거 아시죠?) 저는 하던 얘기만 매듭짓고 물러나려합니다. 제가 로스쿨에서의 보낸 첫 해를 돌아보니 촌스럽기가 짝이 없네요. 성적이 불만족스러워서가 아니라, 몸이 아파서가 아니라, 스스로를 기계취급하며 너무나도 '사람대접'해주지 않았던 것 때문에요. 후회는 없습니다. 다시 돌아가도 똑같이 열심히 하겠지요. 하지만, '나'라는 사람이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존재라는 점을 잊지 않고 기억했다면, 제가 남들보다 좀 느리다고 해서 마음이 그토록 조급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가을 텃밭에 나가보면 제일 늦게 나왔던 새싹도 다 열매를 달고 서 있더라고요. 자, 이젠 정말 마무리 지을게요. 여러분, 사, 사... 사ㄹ..... 사라..... 사람답게, 우리 사람답게 살아요! 날마다 화수분처럼 솟아나는 공부거리 앞에서 저는 여전히 판례를 밑반찬삼아 밥을 먹고, 학교에 다녀오는 건지 집에 다녀오는 건지 헷갈리는 삶을 살겠지만, 적어도 제가 컨베이어 벨트 위의 부품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건 기억해 보려고요. 창

법복 – 판사와 검사에게는 의무사항, 변호사에게는 선택사항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명예기자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5기) **이대일**

> 66
> 법복은 법정의 권위를 상징합니다. 공정과 지혜, 양심의 의미를 내포합니다. 그리고 법복을 통해 스스로 지녀야하는 최소한의 인격과 품위를 나타냅니다. 99

변호사시험을 보기에 이르기까지

지난 12월, 법원에서 진행한 모의 배심원프로그램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모의'라고 해서 연기자들이 하는 가짜 모의 재판일 줄 알고 가볍게 참가했는데, 사실은 실제 형사 사건을 대상으로 한 재판이었습니다. 징역형이 문제되는 중죄 사건 아니었고, 음주운전으로 인해 벌금형이 내려진 비교적 가벼운 사건이었습니다. 실제 피고인과 실제 증인이 참석하여 3시간이상 진행되었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 사건이 구체적으로 어떠어떠하냐를 말씀드려는 것이 아닙니다. 검사 측은 법복을 입고 있었고, 변호사 측은 법복을 입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하여 숨은 이야기를 해보려는 것입니다.

오늘날 판사와 검사는 임관식장에서 법복을 지급받습니다. 법조인으로서 첫 출발의 마음가짐을 잊지 말라는 뜻입니다. 판사는 『법관, 사법보좌관 및 법원사무관등의 법복에 관한 규칙』(2013.6.27.일부개정) 제2조에 따라, 검사는 『검사의 법복에 관한 규칙』(2012.4.16.개정) 제2조에 따라 법복을 입어야 합니다. 수사검사는 법복을 입지 않으나, 공판검사가 법복을 입는 것은 의무 사항입니다.

그러나 변호사는 1966년 대법원 규칙(『판사 · 검사 · 변호사 및 법원서기 복제 규칙』)에서 변호사법복에 대한 규정이 삭제되어 법복을 입을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다만 검사의 법복 착용에 대응하여 2012년 말,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변호인용 법복 비치 및 착용 안내를 위한 시행 계획'을 마련하였고, 이에 따라 서울변호사회가 법복을 제작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비치하여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의무 사항이 아니고 선택사항입니다. 그리고 법복의 복색도 판사와 검사는 검정색이지만, 변호사의 새로운 법복은 붉은색을 띠고 있습니다. 이처럼 색깔이 다르다는 점도 분명 문제입니다. 변호사도 법복을 입는다면 검정색으로 통일시켜야 합니다.

제복 효과 –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숨은 모티브

'제복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1963년 스탠리 밀그램은 권위에 대한 일반인의 복종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실험자는 권위를 상징하는 하얀색 가운을 입고 피실험자에게 전기쇼크 버튼을 누르도록 지시합니다. 피실험자는 그의 지시에 따라 전기 쇼크로 고통 받는 사람(사실은 연기자)을 보고 있으면서도 점점 더 강도가 센 전기 쇼크 버튼을 눌렀습니다. 제복의 권위에 따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도 있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한편, 이 실험이 더 발전하여 1979년 미국의 존슨과 다우닝은 변형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두 그룹으로 나누어 KKK단의 제복과 하얀색 간

호사 제복을 입고 실험을 하였습니다. 피실험자는 KKK단의 제복일 때 더 강한 전기 쇼크 버튼을 눌렀습니다. 제복의 종류와 색깔에 따라서 일반인이 느끼는 권위가 다를 수도 있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이처럼 복장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숨은 모티브로 작용합니다. 그런데 검사는 법복을 입고, 변호사는 그렇지 않는다면, 사람의 마음은 자신도 모르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사도 사람이고, 배심원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재판과정에서의 실질적 평등을 위해서라도 둘은 같아야 합니다. 검사가 법복을 입는 것이 의무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다면, 변호사도 법복을 입는 것이 의무사항으로 규정되어야 합니다. 서로 다른 색깔의 법복을 입어도 그로 인한 권위는 서로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변호사도 법복을 입는다면 검사와 똑같은 색깔을 입어야 합니다. 그것이 피고인의 권리를 조금이라도 더 보장해주는 열쇠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복식 효과 – 보다 높은 책임감을 부여해주는 숨은 모티브

'복식 효과'라는 것도 있습니다. 미국 켈로그 대학 애덤 갤린스키 박사는 의사의 가운이 사람들의 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밝혀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도 제복을 입고 있으면 주의력이 강해지고 정확해지며 조심성이 많아진다는 것이다. 갤린스키 박사는 입는 옷에 따라 태도가 달라지는 현상을 '복식효과'라고 명명했습니다. 그리고 제복을 입었을 때, 그 관련 직종에서의 책임감이 더 높아진다고 분석했습니다.

세월호를 탈출한 이준석 선장은 선장 제복을 입지 않았습니다. 이와 달리, 승객 700여명을 살리고 여객선 타이타닉호의 최후를 함께한 에드워드 존 스미스 선장은 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준석 선장이 제복을 입고 있었다면, 승객들을 버리고 탈출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의 자유를 책임지고 있는 직종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제복을 의무적으로 입어야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형사 사건에서 국선 변호인으로 나선 변호사가 법복을 입는다면, 그렇지 않았을 때보다 피고인에 대한 책임감이 조금이라도 더 높아질 것입니다. 제복은 보다 높은 책임감을 부여해주는 숨은 모티브이기 때문입니다.

법복은 법정의 권위를 상징 – 무기대등의 원칙으로 돌아가야

혹자는 형사 사건에서 검사의 승소율이 90%이상이고 사실상 서면으로 공판이 진행되기 때문에, 변호사의 법복은 어차피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또 다른 혹자는 법복이 구시대적 산물에 불과하고, 변호사가 법복을 가지고 다니는 것은 매우 불편하다고 여길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러한 실무적 상황이나 편리성은 둘째 치고, 기본적인 원칙으로 돌아가서 문제를 다시 살펴보고 싶습니다.

지난 12월, 모의 배심원으로 참여했을 때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모의 배심원으로 참여하면서 사실 처음에는 변호사 측의 의견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분명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단을 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검사 측의 의견이 더 옳다고 느꼈습니다. 다른 배심원 전원 역시 검사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물론 관련 증거의 내용과 증인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아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이외에도 검사는 더 힘차고 자신 있어 보였으나, 변호사 측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위축되어 보였습니다. 변호사조차도 검사 제복의 권위 때문에 기가 꺾여보였습니다. 배심원들은 앞으로 법률적 지식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참여하게 될 것이므로 이러한 점을 간과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일 이와 같은 상황이 앞으로도 계속 발생하게 된다면, 형사소송법상 무기대등의 원칙에 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다소 치우친 판단을 내렸을 때, 좀 더 공정한 판결을 내렸다고 말한 미국 어느 판사의 고백도 주의 깊게 새겨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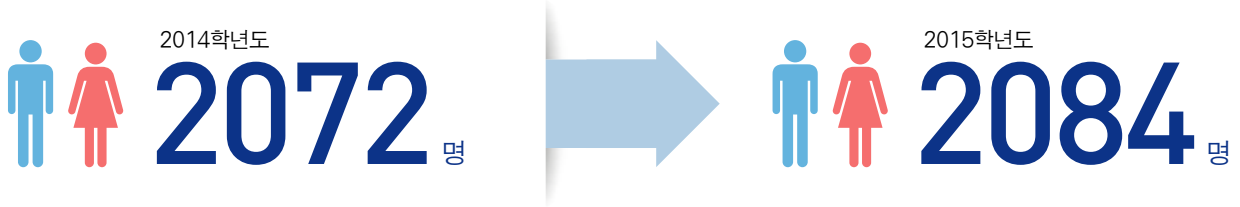
법복은 법정의 권위를 상징합니다. 공정과 지혜, 양심의 의미를 내포합니다. 그리고 법복을 통해 스스로 지녀야하는 최소한의 인격과 품위를 나타냅니다. 법조인은 판사와 검사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며, 사람의 자유와 권리가 더욱 보장되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역할도 매우 중요합니다. 변호사도 똑같이 검정색 법복을 입는 것이 형사소송법상 무기대등의 원칙을 지키는 최소한의 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제복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숨은 모티브이며, 관련 당사자에게 보다 높은 책임감을 부여해주기 때문입니다. 창

25개교 법학전문대학원은 2014년 8월 17일 법학적성시험(LEET)을 시작으로 2015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을 진행했다. 본 입학전형에서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 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의거, 지원자의 학사학위 과정에서의 성적,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자질을 측정하기 위한 법학적성시험(LEET) 결과, 외국어 능력, 사회활동 및 봉사활동에 대한 경력 등을 자료로 활용하여 학생을 선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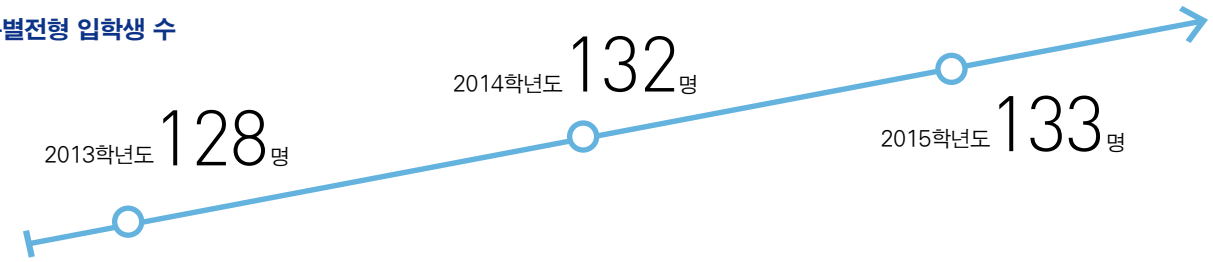
2015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최종합격자 (입학정원+결원 보충 인원)

총 **2084** 명

최종합격자 수



특별전형 입학생 수



자교 / 타교 출신 비율

자교 출신
523명 **25.10**%

타교 출신
1,561명 **74.90**%

법학사 / 비법학사 선발 비율

법학사 917명 **44.00%**

비법학사 1,167명 **56.00%**

교육 내용	자교/타교 합격자 현황		법학/비법학 합격자 현황		특별전형
	자교	타교	법학	비법학	
인원	523명	1,561명	917명	1,167명	133명
비율	25.10%	74.90%	44.00%	56.00%	6.38%

남 / 여 비율

남자 1,186명 **56.91%**

여자 898명 **43.09%**

연령별 비율

〈나이산출: 2014-출생년도+1 또는 2015-출생년도〉

구분	남	여	계	비율(%)
22세 이하	18	31	49	2.35
23세 ~ 25세	227	385	612	29.37
26세 ~ 28세	470	287	757	36.32
29세 ~ 31세	186	117	303	14.54
32세 ~ 34세	149	49	198	9.50
35세 ~ 40세	105	27	132	6.33
41세 이상	31	2	33	1.59
계	1,186	898	2,084	100

최종학력이 대학교 졸업자인 합격자

1,093명 **52.45%**

출신 계열별 비율

구분	일반전형			특별전형			총 계			비율(%)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법학계열	556	300	856	43	18	61	599	318	917	44.00
상경계열	168	160	328	10	5	15	178	165	343	16.46
사회계열	163	153	316	11	7	18	174	160	334	16.03
인문계열	79	138	217	12	10	22	91	148	239	11.47
공학계열	82	17	99	2	0	2	84	17	101	4.85
사범계열	12	26	38	1	3	4	13	29	42	2.02
자연계열	19	16	35	0	1	1	19	17	36	1.73
약학계열	4	6	10	1	0	1	5	6	11	0.53
의학계열	6	3	9	0	0	0	6	3	9	0.43
예체능계열	3	4	7	0	0	0	3	4	7	0.34
농학계열	4	1	5	1	1	2	5	2	7	0.34
신학계열	2	2	4	0	0	0	2	2	4	0.19
기타	6	23	29	1	4	5	7	27	34	1.61
계	1,104	849	1,953	82	49	133	1,186	898	2,084	100

2015 한경 로스쿨 잡콘서트

대기업들 내년엔 잡콘서트 맞춰 변호사 채용시기 결정

한경 잡콘서트, 로스쿨 졸업생 대기업 취업 물꼬 텄다

삼성 · 금감원 등 13개 대기업 · 기관 98명 채용 예정
기업들 "송사에 기업업무까지…멀티플레이어 원해"
중앙선관위, 국가기관 최초로 변호사 20명 공채

서울 중림동 한국경제신문사 다산홀에서 23일 열린 '2015 한경 로스쿨 잡콘서트' 개막식에서 참석자들이 테이프를 자르고 있다. 왼쪽부터 윤흥렬 LG화학 전무, 최봉철 성균관대 로스쿨 원장, 박시환 인하대 로스쿨 원장, 금태환 영남대 로스쿨 원장, 전지연 연세대 로스쿨 원장, 김문재 경북대 로스쿨 원장, 손종학 충남대 로스쿨 원장, 민영성 부산대 로스쿨 원장, 오준근 경희대 로스쿨 원장, 오수근 이화여대 로스쿨 원장, 김기웅 한국경제신문 사장, 신영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하창우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박경철 강원대 로스쿨 원장, 윤종민 충북대 로스쿨 원장, 박희돈 대한항공 상무, 지은석 삼성 선임변호사, 김해남 이랜드 본부장, 김태형 한화그룹 변호사, 김재봉 한양대 로스쿨 부원장, 김룡 한샘 법무팀장. 김병언 기자 misaeon@hankyung.com

삼성 현대자동차 금융감독원 등 13개 국내 대기업 및 기관이 로스쿨 출신 우수 법조인을 채용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23일 한국경제신문사에서 열린 '2015 한경 로스쿨 잡콘서트' 행사에 참여한 대기업과 공공기관, 금융업체 등은 행사장에 별도 부스를 마련하고 로스쿨 출신 인재들과 채용상담을 했다.

행사에는 삼성 현대자동차 LG전자 SK텔레콤 롯데백화점 한화 대한항공 우리은행 한샘 이랜드 금융감독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경찰청 등이 참여했다. 특히 이랜드는 이미 원서를 마감했지만 이날 잡콘서트에 온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추가 지원서를 받기도 했다.

기업 "화합형 변호사 원해"

기업 법무 인사 담당자들은 이날 채용설명회에서 "사내 변호사는 변호사인 동시에 회사원이기 때문에 법률 전문성은 기본이고 회사에 유연하게 적응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내 변호사를 수시 채용하고 있는 LG전자 인사팀 관계자는 "사내 변호사는 소송 · 계약서 검토, 법률자문, 준법 지원 업무를 맡는다"며 "LG전자에선 서비스 분야, 전자계열, 화학계열별로 사내 변호사를 채용하기 때문에 각 회사에서 필요한 배경지식을 갖고 있으면 면접에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올해 사내 변호사 세 명을 채용할 예정인 한샘 측은 "변호사라고 해

'한경 로스쿨 잡콘서트' 참가기업 변호사 채용 계획		
기업	채용전형	특징
삼성(20여명)	서류전형-면접-인턴실습-건강검진	- 대리급 임용
현대차(10명)	서류전형-현업면접-인사팀 면접-임원 면접-건강검진	- 대리급 임용
LG전자	서류전형-인적성 검사-면접	- 대리급 임용
SK텔레콤(5명 내외)	서류전형-실무면접-임원면접-인적성	- 인턴 변호사 채용
롯데백화점(지난해 7명)	서류전형-1,2차 면접	- 대리급 임용 - 올해는 채용계획 없음
한화(10명 내외)	서류전형-1,2차 면접	- 하반기 채용 예정
대한항공(5~10명)	서류전형-1,2차 면접-건강검진	- 대리급 임용
이랜드(10명 내외)	서류전형-직무적성검사-1,2차 면접	- 영어 회화가능자 우대
한샘(2~3명)	서류전형-면접	- 대리급 임용
중앙선관위(20명)	서류전형-면접	- 7급 행정주사보 채용 - 실무경력자, 어학, 정보화 사무관리자격증소지자 우대
경찰청(20명)	서류전형-적성,체력검사-면접-교육-경찰서 배치	- 법조 2년 이상 경력직 변호사 - 임용 후 5년간 수사부서 근무
금감원(하반기 10여명)	서류-필기(논약술 객관식)-1,2차 면접-신체검사, 신원조회	- 논술시험 등 서면면접 병행

서 변호사 업무만 하려는 사람은 선호하지 않는다"며 "도전정신을 갖고 다양한 분야에 뛰어들어 창의력을 발휘할 인재를 원한다"고 말했다. 대한항공 인사담당자도 "소송뿐 아니라 영업, 생산, 인사 등 다양한 업무를 할 수 있는 멀티플레이어형 사내 변호사를 원한다"며 "사내 변호사 채용을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 참가한 중앙선관위는 변호사 인력 20명을 행정주사보 7급으로 채용키로 하고 오는 27일부터 원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김현기 중앙선관위 행정사무관은 "지방 로스쿨 출신 인재를 배려하기 위해 지역별로 쿼터제를 둬 인재를 뽑기로 했다"며 "국가기관에서 변호사 20명을 한번에 뽑는 것은 사상 처음인 만큼 많은 인재가 지원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매년 3월 경력 2년 이상의 변호사 20명을 뽑는 경찰청은 "경찰청 소속 변호사는 직접 수사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관련 지식을 갖춰야 한다"며 "임용되면 수사 중견간부가 되기 때문에 팀원을 잘 이끌 수 있는 리더십을 갖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참가자들 "기업 인재상 알게 됐다"

이날 행사장을 찾은 300여명의 로스쿨 졸업생은 정장을 입고 이력서 수십부를 들고 각 부스를 돌며 즉석 면접을 봤다. 올해 한양대 로스쿨을 졸업한 신모씨는 "사내 변호사의 보수와 처우가 중견 로펌만큼 좋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사내 변호사의 인기가 올라가고 있다"며 "평소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 기업 사내 변호사로 일하고 싶었는데 오늘 행사장을 찾아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강원대 로스쿨 출신 황모씨는 "변호사 시험 결과가 발표된 지 2주가 지난 상황이라 구직에 대한 관심이 높은 시기"라며 "최근 기업에서도 송사업무가 많아지고 있는데 사내 변호사로 취업해 전문성을

키우고 싶다"고 희망을 밝혔다. 서울시립대 로스쿨에서 온 임남택 씨는 "오늘 각 부스를 돌며 기업에서 어떤 인재를 원하는지 확실히 알게 됐다"며 "로스쿨 인재를 위한 이런 행사가 마련돼 취업준비생으로서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박희돈 대한항공 상무는 "내년부터는 한경 잡콘서트에 맞춰 변호사 채용시기를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신영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은 "변호사 2만명 시대에 법조인력이 구직난을 겪고 있다"며 "변호사가 송사만 법조 업무로 생각하고 로펌에 진출하려는 경향이 강한데 오늘 행사가 그런 벽을 깨뜨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국경제 김인선/김순신 기자 inddo@hankyung.com

신영호 이사장 "서류가방 끼고 서초동만 기웃거리면 굶어죽기 십상"

신영호 로스쿨협의회 이사장, 새내기 변호사에 조언
변호사 시험은 자격시험인데 선발은 司試방식…안타까워

"새내기 변호사들이 기업 법무팀뿐만 아니라 생산, 인사, 영업, 마케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면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면 좋겠습니다."

신영호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협의회 이사장(62 · 사진)은 '2015 한경 로스쿨 잡콘서트'에서 기자와 만나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은 이공계 등 다양한 전공에다 외국어에 능통하고 법률 지식까지 갖췄다"며 "재교육이 필요 없는 우수 인재"라고 말했다.

그는 새내기 변호사들이 찾아오면 "앞으로 서류가방 끼고 서울 서초동만 기웃거리면 굶어 죽을 것"이라며 "시야를 넓히라고 당부한다"고 했다. 이어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사회 각 영역에 진출하는 것이 로스쿨 설립 취지에 맞다"며 "선배 변호사들이 후배들에게 길을 터주는 데 앞장서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로스쿨협의회는 기업과 법무법인이 참여하는 변호사 채용설명회를 확대할 방침이다. 또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기업에 더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변호사 인턴제 도입도 하반기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25개 대학 로스쿨 협의체인 로스쿨협의회는 매년 로스쿨 입학설명회를 비롯 법학적성시험과 모의고사시험을 주관하고 있다.

신 이사장은 지난 10일 법무부의 로스쿨 변호사 시험 합격자 발표와 관련해서 쓴소리를 하기도 했다. "객관식 한 문제 차이로 희비가 엇갈린 로스쿨생들이 많다. 로스쿨 변호사 시험은 자격시험인데 최근 선발 방식은 사법시험 선발 방식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했다. 고려대 법대를 나온 신 이사장은 가족법 전문가로 현재 가족법학회 회장도 겸임하고 있다.

한국경제 공태윤 기자 trues@hankyung.com

최승순 법무법인 화우 대표변호사 특강

최승순 변호사 "무한경쟁 법조시장서 살아남으려면 특허 · 세무 · 관세 등 전문성 확보해야"

변호사는 말보다 글 잘쓰는 게 더 중요
자소서도 7매는 돼야

최승순 법무법인 화우 대표변호사(사진)는 경쟁이 치열해지는 법무시장에서 변호사가 살아남기 위해선 전문성을 시급히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대표변호사는 23일 열린 '2015 한경 로스쿨 잡콘서트'의 특강에서 "변호사 수가 급증해 법무시장이 무한경쟁시대에 접어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2000년 4228명이던 국내 변호사 수는 로스쿨 도입과 변호사시험 합격인원 증가로 지난 3월 1만5158명으로 늘어났다. 그는 "사법연수원을 졸업한 1987년에는 개업 변호사 생활이 어렵지 않았지만 최근 수임료가 낮아지고 있어 개업 자체가 힘든 상황"이라며 "변호사가 생존을 위해 법률 소송 분야를 넘어 특허나 세무 관세 등의 전문 영역으로 진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대표변호사는 앞으로 변호사가 갖춰야 할 필수능력으로 외국어 실력을 꼽았다. 그는 "각 나라의 법률시장이 연계돼 국경을 넘어 법률문제를 다룰 수 있는 외국어 능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한국 법률시장이 개방되면서 영국계 로펌은 내년, 미국계 로펌은 2017년 국내에 진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 로펌도 베이징 상하이 라오스 등 외국에 활발히 진출하고 있다"며 "중국어 일본어와 더불어 아직 법률시장이 성장하고 있는 남미시장 공략을 위해 스페인어를 배운다면 경쟁력을 배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2년 롭스앤드그레이(Ropes&Gray)가 한국시장에 진출한 것을 시작으로 국내에는 외국법 자문 법률사무소가 23개 들어와 있다.

법무법인 대표로서 법무법인을 지망하는 로스쿨 출신에 대해서도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최 대표변호사는 "자기소개서에서 자신의 강점을 간단명료하고 인상 깊게 작성해야 한다"며 "추상적으로 작성하지 말고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하면 경쟁력을 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변호사는 말보다는 글 잘쓰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3~4쪽의 너무 짧은 자기소개서보다 7쪽 정도의 분량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한국경제 김순신 기자 soonsin2@hankyung.com

기사 출처: 한국경제신문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5042304921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5042309011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5042304951 창

변호사 배출 인원, 적정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김명기 사무국장**

지난 4월 10일, 제4회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발표됐다. 시험에 응시한 인원 2,561명 중 1,565명의 학생만이 합격(합격률 61.10%)했다. 법무부는 작년 합격 인원(1,550명), 응시생 실력 수준, 응시인원 증가, 법조인 수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격인원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예상보다 적은 합격 인원은 25개 로스쿨과 시험을 치른 학생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줬다.

국제화는 정치, 경제, 문화 등 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국가 간 교류가 증대하여 개인과 사회집단이 하나의 세계 안에서 삶을 영위해 나가는 현상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갖고 있다. 뉴욕 타임스퀘어에서 우리나라 기업의 간판을 보는 것이 전혀 어색하지 않은 것처럼, 국제화, 세계화 시대가 도래하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 나라들이 서로 많은 영향을 주고, 받고, 교류하고 있다.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과 국제화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2009년 법학전문대학원 제도가 도입됐다. 오로지 '법학'만을 공부한 사람만으로는 우리나라의 법률시장조차 제대로 운영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에서였다. 즉, 21세기 산업사회에 적합한 소양이 있는 전문법조인을 양성하고자, 특정산업분야의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에게 '법학'을 가르치자는 것이었다. 이렇게 다방면으로 능통한 사람이 법조인이 된다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시장의 법률문제도 해결할 수 있으리라는 믿음이 있었다.

그런데 과연 지금의 로스쿨이 본래의 취지대로 작동하고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든다. 변호사시험은 애초에 로스쿨 과정을 충실히 이수하여 변호사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갖추었다면, 무난히 취득할 수 있는 자격시험으로 운영하기로 한 바 있다.(2010.12.7.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심의 결과) 하지만 합격률은 끊임없이 떨어지고 있다. 그러다보니 변호사시험 과목에만 학생들이 몰리고, 시험과목이 아니면 폐강되고 있는 실정이다. 선택과목과 특성화 과목, 국제화 프로그램 등의 기피현상은 두 말 할 것도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애초에 의도했던 대로 국제무대를 발판 삼아 세계 속에서 경쟁하는 전문법조인이 양성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 합격률 문제로 인해 로스쿨 제도의 정상적 작동 및 내실화는 큰 장애물에 부딪혔다.

이번 제4회 변호사 시험은 제3회 변호사시험 응시인원(2,292명)보다 269명의 인원이 더 응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합격률은 오히려 더 낮아졌다. 로스쿨 학생들의 실력, 시장의 수급 상황 등을 이유로 들었지만, 이는 매년 증가하는 응시자의 수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과 같으며 로스쿨 제도 도입 취지에도 반하는 결과이다.

하지만 과연 로스쿨 학생들의 실력에 문제가 있고, 법조 시장은 더 이상 확장될 수 없을 만큼 포화상태일까? 우선 로스쿨의 경우 엄정한 성적평가 및 학사관리를 통해 교육의 질을 확보하고 있다. 2,000명이 입학하면 약 300명 가량은 중도 탈락

(유급, 졸업시험 탈락 등)을 하고 있다. 유급자 및 미수료자가 거의 없는 사법연수원과 다르게 로스쿨의 학사관리가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다른 전문대학원과 비교를 해 봐도, 로스쿨 학생들의 변호사시험 합격률에 문제가 있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의사 · 치과의사 · 한의사 · 약사 등의 시험 합격률이 응시자 대비 90% 이상인 점을 고려할 때, 변호사시험 합격률 61.10%는 '자격시험'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평가된다. 합격에 대한 꿈과 희망으로 입학한 학생들의 대다수가 탈락함으로써, 과거 사법시험의 낭인이 발생했던 것처럼 '변시 낭인'이 발생하고 있다. 탈락한 학생들은 1년 동안 경제적 · 정신적 부담은 물론이거니와 사회 진출 기회마저 박탈당하는 등의 악순환에 시달리고 있다.

그동안 사회적 · 경제적 취약 계층에게 희망의 사다리가 필요하다는 근거로 여러 의원이 사법시험 존치 입법을 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법무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경제적 여건 등 열악한 계층에서 특별전형으로 선발된 로스쿨 학생 499명(1기~4기) 중 315명이 변호사시험에 합격했다. (제4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경제적 배려자 61명, △국가유공자 · 농어촌지역 고교 출신자 등 사회적 배려자 4명, △장애인 등 신체적 배려자 10명이 장학금 등 학비 지원을 받아 역경을 이겨내고 합격) 물론 평균 합격률에 비해 낮은 수치이기는 하나, 사법시험은 경제적 약자가 합격하기 어려운 구조였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는 꽤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들 역시 변호사시험 불합격 후 재시험에 응시할 때까지는 각종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특별전형으로 선발된 학생들의 경우 로스쿨 재학 중에는 등록금을 비롯해 생활비까지 학교로부터 지원받지만, 변호사시험에서 탈락한 이후(졸업 후)에는 어떤 지원도 받지 못하고 방치되는 현실이라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로스쿨 도입 취지에 맞게 자격시험으로 운영하며 유급 및 졸업 탈락자를 제외한 응시자 대비 75% 수준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면 위와 같은 문제점은 해결될 것이며, 글로벌화에 부합하는 법조인 또한 양성할 수 있을 것이다. 해외의 로스쿨 시스템과 비교했을 때에도 현재의 합격자 결정 방식에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본 로스쿨의 경우 준칙주의를 통해 정부가 정한 설립기준에 부합하는 대학은 모두 로스쿨을 설립할 수 있도록 인정해주고 있다. 또한 정원무규제, 기존의 법과대학도 유지할 수 있어 재정 부담이 없다. 다만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낮다는 문제가 있다. 미국의 경우도 로스쿨 입학 정원에 제한이 없으며, 변호사시험 역시 변호사로서의 일정한 수준을 갖추었다면 무난히 합격하는 시스템으로 설계되어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와 반대이다. 준칙주의가 아닌 인가주의로 설립되었고, 인가주의에 의해 25개교/2,000명 선발을 비롯해 학교별 소규모 할당 인원(40명~150명 내외)이 정해졌다. 뿐만 아니라 법과대학도 폐지되고 정원도 통제받는 상황이라 큰 재정 부담을 떠안았다.

로스쿨 학생들은 입학 당시 대학 수학능력시험과 같은 법학적성시험 등으로 엄정한 평가를 통해 미래의 법조인으로서 1차적 검증을 마친 상태이기도 하다. 그런데도 굳이 애초의 도입 취지, 설립의도와 반하게 끊임없이 변호사 합격률이 낮아지는 까닭은 무엇일까? 변호사시험법 제10조에서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시 로스쿨 도입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까닭은 무엇일까? 물론 기존 법조계에서 주장하는 법조 시장의 포화상태 등의 어려운 사정은 충분히 이해된다. 그러나 국민의 입장에서는 변호사가 많이 배출될수록 향상된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합리적인 수임료로부담이 적어지는 것은 명확한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근거 없이 로스쿨을 흔들고 진입장벽을 막아 배출을 줄이려고 하는 이들은 예비 법조인의 고통을 생각하지 않고, 기득권 보호에만 급급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든다.

2017년 사법시험이 폐지됨에 따라 매년 사법연수원 수료자가 감소될 것이고, 2020년에 50명을 끝으로 더 이상 수료자가 발생하지 않는다. 연수원 수료자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확대해도, 결코 기존보다 법조인이 과잉공급된다고 할 수 없다. 수요부족이나 공급과잉을 이유로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낮추어서 로스쿨의 도입 취지를 훼손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과 다름없다. 하루빨리 변호사 배출을 정원통제 방식에서 자격시험으로 운영해야 로스쿨이 안착될 수 있을 것이다. 창

호주 법조인,
어떻게 양성되는가?

1788년 영국은 죄수들을 수용하는 유배지를 현재의 시드니(sydney) 지역에 건설했다. 그 이후 호주는 영국으로부터 투쟁을 통해 독립을 얻은 적이 없으며, 아직도 영연방에 소속된 국가로 국가원수는 영국 여왕으로 되어 있다. 1986년까지도 호주에서의 모든 법률분쟁의 최종 결정권은 영국에 있는 법률기구에 달려있었다. 때문에 호주의 법 체계는 영국의 법 체계와 매우 유사하며, 미국의 장점도 흡수해서 '미국과 영국의 퓨전' 법 체계를 갖고 있다.

1 호주 사법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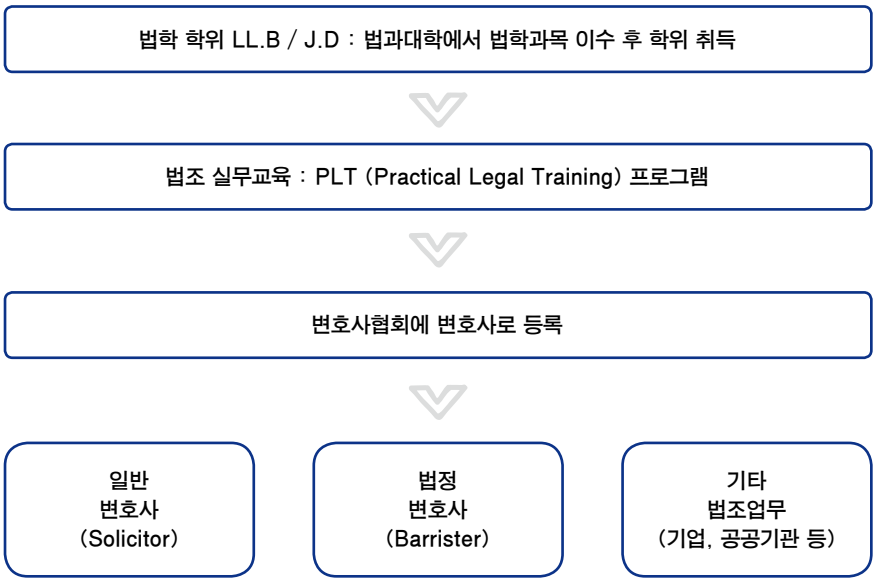
호주는 미국과 마찬가지로 연방 체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각 주마다 법률 체계가 통일되어 있지는 않다. 즉, 각 주는 독립된 사법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주최고재판소 · 민사재판소 · 형사재판소 외에 아동재판소나 산업계의 분쟁을 해결하는 조정재판소 · 중재재판소 등의 독특한 제도가 있다. 그 밖에 연방법과 관련된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을 관할하는 행정심판소와 원주민 소유권법에 따라 원주민 소유권과 관련된 소송을 전담 처리하는 원주민소유권재판소가 있다.

※ 호주의 법 교육은 기본적으로 영국의 로스쿨 제도를 따르고 최근 몇 년간의 추세를 보면 미국의 로스쿨 제도가 접목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2 변호사 양성

다른 국가와 달리 호주의 경우 변호사가 되기 위한 별도의 국가고시는 없으며, 호주법률협회에서 인정하는 과정 과목을 이수하고, 몇 과정만을 거치면 변호사로서 인정받을 수 있다.

변호사 양성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이루어진다.



3 일반변호사 (Solicitor) vs. 법정변호사 (Barrister)

호주의 변호사는 영국과 마찬가지로 두 가지 타입으로 분류된다. 일반변호사와 법정변호사의 업무 영역은 전통적으로는 달랐지만, 최근에는 같은 업무를 보기도 한다. 일반변호사 역시 법정에 설 수는 있지만, 보통은 법정변호사가 법정에 서고 일반변호사는 그 보조의 업무를 담당한다.

일반변호사(Solicitor)	법정변호사(Barrister)
- 일반변호사는 주로 소송의뢰인에게 법률 자문을 하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의뢰인을 만난다. - 소송의뢰인 사이에서 재판 사무를 취급하고, 각종 보험, 부동산, 재산 등 민사와 사무를 다루는 변호사를 말한다.	- 법정변호사는 고객을 직접 상대하지 않고, 법정에서만 고객을 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 주로 연방에서 업무를 지시받는다.

4 법과대학에서의 학위 및 교육내용

여기서 잠깐!

※ 해당 분야에서 5년간 실무를 연수한 후 호주 정부가 주관하는 시험에 통과하면 '○○법 전문변호사'라는 특수 분야의 전문 변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호주의 경우 특정 분야의 전문성을 상당히 중시한다.

법학학사 학위 (LL.B, The degree of Bachelor of Laws)	- 4년 8학기 제도를 가지고 있는 법대와 3년 6학기 제도를 가지고 있는 법대로 구분된다. - 4년 8학기 제도는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입학 가능한 코스이며, 3년 6학기 제도는 대학학위 취득 후 다시 입학하는 코스(Graduate Entry)로 미국의 J.D과정과 흡사하다. - 4년제 법대보다 3년제 법대가 더 보편화된 편이다. - 전공을 '법학' 한 가지로 정하면 대부분 법정변호사로 진출하지만, 복수전공으로 2개 이상의 전공을 이수했을 경우에는 두 번째 전공을 살려서 일반변호사로 진출하는 추세이다. ※ 복수전공 제도 많은 학생들이 법학뿐만 아니라 예술, 경영, 상경, 과학 분야를 복수로 전공해서 두 개의 학위를 소지한다. 5년 동안의 2개의 학위를 소지하게 되고, 법학을 제외한 두 번째 전공은 향후 진출할 분야 중 관심 있는 분야로 선택한다.
법학석사 학위 (JD, Juris Doctor)	- JD 코스는 약 4년간의 과정이며, 수강 과목에 따라 기간이 단축되거나 연장될 수 있다. - 계절학기를 이용하면 2년만에도 학위를 받을 수 있으며, 북미지역의 학생들이 많이 선호하는 코스이기도 하다.

법학 교육 내용

1992년 4월 호주 법조입회자문회의(LACC, Law Admissions Consultative Committee)에서 대학법학교육의 범위를 정한 영역을 바탕으로 통일된 변호사가 되기 위한 기준 모델을 제시했다. 각 주는 Priestley11을 변호사가 되기 위한 법학교육 요건으로 채택해, 'Priestley11'라는 이름으로 학생들에게 법학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다음의 주제는 편의상 개별영역에 대한 법학지식의 표제로 편성한 것이지, 다른 적합한 개별주제가 있으면, 반드시 이 영역을 가르칠 필요는 없다. 다만 이는 전면적인 자율권이 아니라, 법조위원회와 시험위원회의 감독과 관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Priestley11〉

행정법 Administrative Law	민사소송법 Civil Procedure	회사법 Company Law
헌법 Constitutional Law	계약법 Contracts	형법, 소송법 Criminal Law and Procedures
형평법 Equity (including Trusts)	증거법 Evidence	신탁회계 Professional Conduct (including Basic Trust Accounting)
물권법 Property, both Real (including Torrens System Land) and Personal	불법행위법 Torts	

교과과정 이외에 방학기간을 이용한 로펌실습 및 인턴십도 진행된다. 학생들이 실질적인 법률 업무를 경험하고, 변호사의 업무를 현장에서 보고 배울 수 있도록 제공되는 이 프로그램에서는 소송지원, 법정 실습, 문서 작성 등을 미리 익힐 수 있다.

5 랭킹, 등록금

여기서 잠깐!

※ 로스쿨의 순위는 조사 기관 및 방법에 따라 천차만별이지만, 열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호주의 로스쿨은 오른쪽과 같다.

1위, *Edith Cowan University*
2위, *University of New South Wales*
3위, *University of South Australia*
4위, *Bond University*
5위, *University of Wollongong*
6위, *Charles Darwin University*
7위, *Monash University*
8위, *University of Canberra*
9위, *University of Technology, Sydney*
10위, *La Trobe University*

등록금

호주 로스쿨 등록금은 대학마다 상이하며, 학생들은 적게는 연간 $36,000에서 많게는 $46,900의 등록금을 내고 있다. 호주 국민이 아닌 외국인 학생의 경우 25~40% 가량의 더 높은 등록금을 납부하고, 학위의 종류에 따라 등록금액은 천차만별로 달라진다.

$36,000 ~ $46,900

6 법조실무교육 및 변호사 자격 부여

법조실무교육은 변호사가 되기 위해 거치는 마지막 단계이며, 일정 기간 실무교육을 받아야만 업무 능력이 있는 변호사로 인정을 받으며, 변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주마다 법조실무교육을 하는 기관 및 방식이 다양하다.

New South Wales 주

일반적으로 College of Law 등 입회위원회(Legal Profession Admission Board)에서 인가한 5개 기관에서 실시한다. 5개 기관 중 College of Law를 제외한 4개의 기관은 모두 대학의 부속기관이다. 실무교육 제공 기관 중 가장 유서가 깊은 것이 College of Law이다. College of Law의 경우 전시간(full-time)/단기간(part-time)과 온라인(on-line)/오프라인(off-line) 코스가 제공된다.

일반변호사의 경우 위의 법조실무교육을 이수하기만 하면 별도의 시험 없이 일반변호사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다. 다만, 일반변호사로 개업을 하기 위해서는 법률협회(Law Society of NSW)로부터 개업인증서를 받아야 한다.

법정변호사의 경우 일반변호사 자격 보유자 중 별도의 시험(Bar Exam)과 실무연수를 또 다시 거쳐야 한다. 시험은 1년에 2회(2월과 7월), 3과목에 대하여 실시된다. 매 과목에서 75% 이상의 득점을 하면 합격하며, 불합격한 과목에 대하여는 그 과목에 한하여 재응시 가능하나, 실무연수 시작 전 10개월 내에 세과목을 합격해야 실무연수를 받을 수 있다.

Victoria 주

(1) 변호사 사무실 실습(Clerkship)
변호사 사무실에 고용되어 도제식으로 교육을 받는 과정이다. 12개월을 원칙으로 하지만 주 변호사협회에 신청하여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2) PLT (Practical Legal Training) 프로그램
PLT 과정에서 변호사로서의 기본 업무, 역할에 대해 습득할 수 있다.

프로그램 이수 기간	- 종일 프로그램(full-time)의 경우 15주 - 단기 프로그램(part-time)의 경우 30주
교육 내용	- 변호, 법률초안 작성, 고객 상담, 협상, 경영관리, 문제 해결, 소송, 법조윤리, 재산 · 기업 등
평가	- 정형화된 필기시험은 없으나 객관식, 구술시험으로 프로그램을 잘 이수했는지 정도만 평가한다.

PLT 과정이 끝났을 때, 변호사들은 비로소 APLEC(Australasian Professional Legal Education Council)와 LACC(Las Admissions Consultative Council)에서 보증하는 입문변호사 자격을 얻게 된다. 일반변호사의 경우 별도의 시험 없이 자격증을 부여받으며, 법정변호사의 경우 최소 10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법정변호사 밑에서 일정 기간 동안의 수습을 더 거쳐야 한다.

7 판사, 검사

호주는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일정기간 경력을 쌓은 사람들을 상대로 검사를 뽑는다. 한국과의 차이점은 호주의 검사는 기소권만을 가지고 있고, 수사권은 경찰에게 있다는 점이다. 경범죄의 경우 검사가 기소하지 않고, 경찰이 기소하는 약식기소도 있다. 판사 역시 검사나 변호사 중에 임명된다.

참고문헌 / 참고자료

"Careers for Law Graduates". The College of Law, 2013.
http://www.nswbar.asn.au/
http://sydney.edu.au/
http://www.vicbar.com.au/
http://www.wabar.asn.au/ 창

나의 사내변호사 생활기

이정은 변호사

서울대 언론정보학과를 졸업하고 대학원과 사회생활 중 고민하다 공부는 언제든 다시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현대자동차 기획실에 입사했다. 재밌기도 하고 힘들기도 한 직장생활을 하던 중 여전히 마음 한 구석에 채워지지 않는 욕구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과감히 퇴사하고 로스쿨에 입학했다. 로스쿨에서 평생의 짝을 만나 결혼도 하고 사시 경험이 있는 그의 도움을 받아 무사히 변호사시험도 합격했다. 지금은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기업 관련 입법 정책 업무를 하고 있다. 앞으로도 계속 새로운 경험을 하며 이 사회에 필요한 동량으로 살아가고 싶다.

안녕하세요? 저는 3년차 변호사 이정은입니다. 다음은 제가 로스쿨에 재학 중이신 후배님들께 조금이라도 로스쿨 생활, 졸업 후의 진로와 관련해 도움을 드리고자 생각해 본 제 경험담입니다.

1. 입법에 입문하다!

흔히 사내변호사라고 하면 회사 내 계약서를 검토하고 회사 소송을 관리하고 사내 여러 부서의 법률문제에 대한 자문을 해주는 역할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저는 사내변호사이지만 이런 업무들은 부수적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주된 업무는 새로 태어나거나 바뀌는 법률안 중 기업 경영과 관련된 안을 검토하고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기존 법률 조항 중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찾아내 국회, 언론 등에 건의하는 일입니다.

제가 일반 기업이 아닌 연합회에 지원한 이유는 로스쿨에서 선택법으로 공부했던 경제법에 푹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로스쿨에 입학해 처음 접한 법학 공부는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좀 달랐습니다. 저는 사회대 출신이라 법학도 비슷할 거라 막연히 생각했는데, 법학은 답안지도 목차를 짜서 작성해야 하고 순서도처럼 문제를 풀어나가야 해서 오히려 문과 분야의 수학처럼 느껴졌습니다. 적응하느라 좀 애를 먹었는데요, 그래도 그나마 대학 때 공부하던 것과 비슷하다고 느꼈던 과목이 경제법이었습니다. 공정거래법, 소비자기본법, 약관규제법, 할부거래법 등 공부하기가 수월했던 것은 물론, 알면 알수록 실생활에도 도움이 되고 재미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로스쿨을 졸업하고도 이 분야에 대한 연구를 계속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고, 전경련은 그런 면에서 경제법을 계속 연구하기에 좋은 곳이었습니다. 요즘은 변호사시험에서의 선택법 난이도 때문에 경제법을 선택하는 분들이 많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그래도 기본법뿐만 아니라 선택법도 진로에 큰 도움이 되니, 본인이 흥미를 느끼는 분야를 선택해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저는 이곳에 입사한 지 2년이 다 되어갑니다. 처음에는 입법 관련 업무가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지금도 그렇구요. 사실, 로스쿨에서 법학 공부를 할 때엔 기존 법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공부만 했었기 때문에 입법 분야가 생소하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입사하고 제일 먼저 맡았던 업무가 2013년 법무부가 내놓은 상법 개정안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감사위원 분리선출, 집중투표제 의무화, 집행임원제 의무화, 다중대표소송 도입, 전자투표제 의무화가 주요 쟁점이었는데 상법 공부를 할 때 유심히 살펴보지 않았던 주제들이라 새로 공부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래도 어떤 법리적 다툼이 있는지, 해외 입법례는 어떤지, 기업이 나의 의뢰인이라면 나는 어떤 논리를 개발할 수 있을지 생각해보면서 재미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2. 나의 가치관과 업무 사이의 충돌 해결하기!

두 번째로 제게 주어진 큰 업무는 배임죄였습니다. 역시나 로스쿨에서 주어진 사례를 보고 어떤 조문을 적용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를 주로 공부했던 탓에 처음에는 '배임죄가 도대체 무슨 문제란 말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로스쿨을 갓 졸업한 새내기 변호사로서 정의실현에 힘써야 한다는 변호사 윤리강령을 떠올리며, 과연 내가 하는 일이 정의로운 일인가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몇날며칠을 괴로워하다가 로스쿨 동기에서 인생의 반려자가 된 제 남편에게 고민을 털어 놓았습니다. 남편은 이런 말을 하더군요. "법학 공부할 때 기본이 뭐야? 조문이잖아. 다른 건 신경 쓰지 말고 조문만 잘 들여다 봐." 저는 뭐 이런 도움도 안 되는 말을 하나 싶어 서운한 감정이 앞섰지만, 그 다음 날부터 배임죄 조문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뭘까 싶어 진짜 가만히 28단어로 이루어져 있는 배임죄 조문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리고 배임죄 판결문을 보면서 문제가 뭘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자 진짜 문제점이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법 조문에는 '손해를 가한 때'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법원에서는 손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된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고 해석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법 조문만으로 모든 해석이 도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사람의 신체를 구속하게 되는 형사처벌에 있어서만큼은 죄형법정주의가 철저히 지켜져야 한다는 건 제 신념과도 합치되는 부분이었습니다. 또한, 임무에 위배되는 일이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판사가 아닌 이상 쉽게 파악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로 살핀 사례는 회사 내의 이사들의 배임행위였는데 이는 상법상 특별배임죄로 의율하도록 되어 있어,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 지켜져야 할 거 같은데 실제로는 형법을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오로지 특경법상 가중처벌을 위해서 형법을 적용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더군요.

이렇게 저는 제 업무에 차츰 적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길게 제 경험을 얘기한 이유는 지금 로스쿨에 재학 중이신 후배님들이 졸업 후 어떤 자리로 가시게 되든 그 곳에서 법조인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느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어느 곳에 가시든 한 번쯤은 이 일이 나하고 맞는 건지, 내가 옳은 길을 가고 있는 건지 고민이 드실 때가 있으시겠죠. 전 어떤 일이든 가치 없는 일은 없다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변호사 업계가 많이 힘들어져서 로스쿨에 입학할 때 상상했던 것과 다른 상황에 처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힘을 내서 본인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다 보면 재미도 느끼고 보람도 찾으실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3. 제1회 기업법 모의재판 경연대회를 기획하다!

저희 회사의 장점 중 하나는 담당자 개인이 어떤 아이디어를 내서 기획하고 진행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주어진다는 점입니다. 저는 로스쿨에 다닐 당시, 가인법정변론대회나 모의공정거래위원회에 참여한 적은 없었지만 많은 선 · 후배, 동기들이 관심을 가졌던 사실을 떠올렸고 만약 기업법에 특화해서 모의재판 경연대회를 연다면 졸업 후 사내변호사나 기업법무를 하고 싶어 하는 후배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팀원들과 상의한 끝에 저희 팀에서 로스쿨생을 대상으로 제1회 기업법 모의재판 경연대회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준비해보는 큰 행사라 홍보가 중요했고, 적어도 서울 시내에 있는 로스쿨은 거의 다 찾아가 원장님들께 대회의 취지를 설명 드리고 로스쿨생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해주시길 부탁드렸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상은 6개, 적어도 6팀 이상은 지원해줘야 한다는 생각에 신청 마감일은 조마조마한 기분으로 1분 1초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두둥! 결과는 다행히도 11팀 지원이라는 첫 회 치곤 나쁘지 않은 성적을 받았습니다. 서면을 받아 예선심사를 하고 본선이 열리던 날, 총 6팀이 현장경연을 했는데 예상보다 훨씬 더 실제 재판과 유사하게 진행해 주시는 것을 보고 감동 받았고 또 뿌듯했습니다.

물론, 변호사시험 준비에 이런 대회를 준비하는 짬을 내기란 정말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잘 알지만 그래도 기업법무에 관심이 많은 로스쿨생들께 도움이 되는 행사로 만들고자 기획한 만큼 올해도 많은 로스쿨에서 참가해 주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또한, 저뿐만 아니라 법조현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많은 로스쿨 졸업생들께서 선배, 동기, 후배들을 위한 일에 함께 힘써 주신다면 로스쿨의 앞날이 더더욱 빛나리라 생각합니다. 창

Ciao Adele, the Golden Lady

– 클림트, 아델르 블로우 – 바우어 부인의 초상(1907)

아름다운 황금 장식으로 가득 차 있는 가운데 아름다운 여성이 두 손을 모으고 화면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기하학적 문양 속에 사실적으로 표현된 얼굴이 대조적입니다. 이 양식은 오스트리아의 화가 구스타프 클림트(1862~1918)의 '황금스타일'의 대표작으로써 가장 아름다운 초상화 중에 하나입니다.

이 작품은 한눈에 보아도 화려함이란 이런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회적 위치가 높은 그녀의 신분과 남편의 재력을 상징하기 위해 실제 금, 은을 사용한 화법은 그때까지 초상화에서는 잘 사용되지 않았고 비잔틴 양식처럼 종교적 회화에나 사용되었던 것이므로 마치 아델르 부인이 여신과 같은 느낌을 들게 합니다.

클림트는 이 그림을 3년에 걸쳐 그렸으며 화려한 문양과 색채 속에서 불가사의한 눈빛과 감각적인 입술을 가진 모습으로 부인을 그렸습니다. 부인의 얼굴은 유화로 그린 뒤 그 위에 금칠을 했습니다. 붉은 볼과 빨간 입술, 연한 피부와 짙은 눈썹이 보는 이를 사로잡습니다. 이 여성의 작은 얼굴과 황금빛 거대한 배경이 묘한 대비를 이루며 마음을 움직입니다.

클림트는 미술사에서 중요한 위치의 작가입니다. 20세기 초 오스트리아 작가들은 스스로 '분리파'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과거의 관습과 다른 예술을 한다는 것입니다. 분리파 작가들은 오스트리아에 기존의 예술사와 다른 양식을 보여주는 고흐, 고갱, 로댕 같은 작가들을 소개하고 그와 같이 다른 예술작품을 선보여 주었습니다. 그러나 클림트는 분리파 작가이면서도 다른 작가들과 조금 달랐습니다. 보통 분리파 작가들의 작품은 처음에는 생소한 모습으로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 못했지만 클림트는 20대 중반에 이미 황제의 훈장을 받을 만큼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작품을 거의 팔지 못했던 고흐와 달리 작품도 비싸게 잘 팔렸지요. 정부의 주문을 받아 빈의 왕정극장과 같은 공공건물 장식 벽화도 많이 그렸습니다. 나중에는 여성 초상화와 풍경화를 주로 그렸는데 소재면에서는 당대 진보적 작가들에 비해 진부하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화풍은 아주 신비롭고 신선해서 장식적이면서도 전통적이고 몽환적이면서도 사실적이었습니다.

이 여성의 이름은 아델르 블로흐-바우어 (Adele Bloch-Bauer, 1881~1925) 입니다. 그녀는 빈의 유명한 은행가의 실력자 '모리츠'의 딸이자 유대인 기업가로 20세기 초반 빈에서 설탕 제조업을 영위하였던 '페르디난드 블로흐 바우어'의 아내입니다.

오스트리아 빈 사교계의 명사이자 그의 후원자였던 블로흐 바우어 부인을 위하여 남편은 당시 빈에서 가장 유명한 화가 클림트에게 아내의 초상화를 의뢰하였습니다. 그림의 아델르 부인은 풍부

한 재정을 과시하는 듯 남편이 선물한 목걸이와 모피 착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목걸이는 클림트의 다른 작품 '유디트'의 목걸이와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녀는 클림트가 유일하게 두번이나 초상화를 그린 여인입니다. 그녀와 클림트는 초상화를 그리면서 처음 만난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그들이 처음 만난건 1901년, 아델르가 중매결혼 하기 직전이었습니다. 이후 이들은 12년간이나 연인관계를 지속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아델르 부인의 후손측에서는 부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델르 부인은 당시 오스트리아 빈 은행연합 감독의 딸이었고 결국 자신이 아닌 다른 남자의 부인으로서, 초상화의 모델로, 클림트를 대면하게 된 것입니다.

그림을 보면 그녀의 왼손은 오른손을 감싸고 있는데, 이는 그녀가 어릴 때 사고로 가운데 손가락을 잃었기 때문에 손가락을 감추기 위한 것입니다. 클림트가 아델르 블로흐-바우어 부인을 처음 보면서 사랑에 빠졌으나 결국은 다른 사람과 결혼한 여자의 초상화를 그리게 되었으니 그 애틋한 마음을 이러한 작은 배려로 보여준 것 같습니다.
구스타프 클림트는 아방가르드의 탄생의 상징적인 화가로서 개성적인 에로티시즘의 여성상을 표현함으로써 새로운 예술관 및 장식적 미술의 장르를 탄생시킵니다. 클림트의 사실적이면서도 장식성이 돋보이는 작품 세계에서는 얼굴은 사실적이고 섬세하게 표현하면서 그 밖의 부분은 평면적이며 복잡한 무늬를 조합하여 대비시킵니다.
그러나 클림트는 여성을 순수하게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요부로 묘사한 화가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여성을 아주 많이 그렸지요. 그의 대표적인 작품 '키스'에서도 남자모델은 뒤통수 밖에 보여주지 않고, '이브'에서도 남자 모델은 흐릿하게 배경으로만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카사노바보다 뛰어난 자유분방함을 보이고 성적으로도 상당히 개방적이었다고 합니다. 스캔들도 엄청났고, 자신의 모든 모델들과 잠자리를 했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의 사생활에 흥미로운 점이 있다면, 수 많은 여성들을 들이면서 평생 동안 자기집을 따로 갖지 않은 채, 어머니 그리고 두 여동생과 함께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화가들과는 다르게 자신의 초상화는 절대 그리지 않는 것으로도 유명하다고 합니다.
이 그림을 소개 한 것은 단지 아름답고 중요한 시대적 작품이어서만이 아니라, 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흥미를 가질 만 한 법적 이슈가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이 그림은 소유권을 둘러싼 법적 분쟁 때문에 더 유명해졌습니다.
원래 오스트리아 국립미술관에 있었던 이 작품은 미국에서 제기된 8년에 걸친 청구 소송(바우어 부인의 상속녀 마리아 부인과 랜돌 쇤베르크이라는 변호사의 오스트리아 정부를 상대로 한 소유권 반환 청구소송) 끝에 결국 이 작품이 오스트리아 정부의 소유가 아님을 입증하고 결국 변호사의 의뢰인인 마리아 부인에게 돌아갔습니다. 이후 그녀는 유명 화장품 에스티 로더 사장에게 역대 최대가격인 1440억 원에 팔았습니다.
이 작품은 아델르 부인의 남편인 페르디난드 블로흐-바우어가 아내인 아델르를 그려달라고 클림트에게 주문해 그린 초상화라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블로흐-바우어 부인은 1925년 숨지기 전 남편 소유의 클림트 작품을 모두 오스트리아 국립박물관에 기증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1938년 오스트리아가 나치 독일에 합병되었고 이 과정에서 오스트리아 내 유대인에 대한

조직적인 학살과 약탈이 일어났습니다. 이후 블로흐 가문과 그의 후손들은 스위스로 망명했고 블로흐 가의 대저택과 함께 아델르 블로흐-바우어의 초상을 비롯한 많은 미술품들이 나치에 몰수당했습니다. 같은 시기에 로스차일드 가와 레더러 가 등 유대인 명문가 소유의 예술품 3만 5000여점이 몰수되지요.
이 그림은 나치의 손에 들어갔으나 전후 남부 오스트리아 가밍의 한 수도원에서 보관되어 있다가 오스트리아 정부에게 넘어갔고, 다른 그림 4점과 함께 비엔나 벨베디어(Belvedere) 궁전 안에 있는 오스트리아 국립미술관에 소장되게 되었습니다. 바우어 부인이 유언에 의해 오스트리아 정부에서 나치로부터 구입한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페르디난드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해인 1945년 스위스에서 죽는 바람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림을 다시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1946년 나치로부터 해방된 오스트리아 정부는 무효법(Nichtigkeitgesetz)을 공포하였는데 동 법률 제1조에 의하면 "독일의 점령기에 독일제국의 정치적 또는 경제적인 추구로 1938년 3월 13일부로 자연인 또는 법인에게서 재산권을 몰수하기 위해서 행해진 법률행위와 기타의 법적 행위는 유상이든, 무상에 의한 것이든 모두 무효"라는 것입니다. 또한 1946년 오스트리아 정부는 환수법(Rückstellungsgesetz)을 공포하였는데 동 법률에 의하면 국가소유의 문화재나 예술품은 국가의 승인이 없이는 반출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정부로부터 소유권을 이전시킬 수 있었을까요? 무려 후손들이 68년간의 법정싸움을 거쳤다고 합니다. 1948년 페르디난드의 상속인들을 대표하여 구스타프 리네쉬가 과거 페르디난드가 소유하였던 클림트 그림의 환수를 시도하였는데 오스트리아 미술관은 문제가 된 클림트의 그림은 1923년 아델르 블로흐-바우어의 유언에 따라, 그녀의 남편의 사망 후에 기증된 것이라고 답신하였습니다.
법정에서도 1925년 아델르의 사망후, 페르디난드는 그림이 아델르의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것이나 아델르의 유언에 따르기로 약속하였음은 밝혀졌지만 법적으로 그녀의 유언에 구속되어 이를 실행할 법적 의무는 없는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이후 오스트리아 미술관과 재무상은 블로흐-바우어 집안의 상속인들과의 분쟁에 대비하였고 오스트리아 미술관 가자롤리관장은 연방문화재청장인 데무스에게 미국에서 개최되는 「페르디난드 소장 작품전시회」에 문제된 클림트작품의 반출을 불허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오스트리아 정부는 클림트의 그림은 기증된 것임을 명시하면서 벨베데레 미술관에 전시하게 되었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난 후 1998년 오스트리아정부는 문화재반환법(Kunstrückgabegesetz)을 공포하고 동법의 시행에 따라 블로흐-바우어 콜렉션에 속해 있던 클림트의 그림 17점과 19편의 자기류가 페르디난드의 상속녀인 조카딸 마리아 알트만 부인에게 반환되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된 클림트의 작품들에 대해서는 오스트리아 정부가 1923년 아델르의 유언에 따라 적법하게 소장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반환을 거부합니다.
페르디난드 사망시 자식이 없어 형제 3인을 상속인으로 지명했는데, 마리아 알트만은 그들의 자식인 조카들 중 가장 오랫동안 살아 있었던 조카였고, 뒤늦게나마 주변인들의 조언을 통해 삼촌이 소장했던 그림을 자기 것으로 돌려받을 수도 있다는 걸 알게 된 것입니다. 마리아는 2000년에 오스트리아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빈의 국립미술관에 있는 아델르 블로흐-바우어 부인의 초상을 포함한 클림트 그림 5점이 나치가 자신의 삼촌에게서 강제로 빼앗은 재산이기 때문에 불법적으로 소유권 빼앗은 나치로부터 이전받은 오스트리아 정부는 합법적인 소유권자가

아니고 유족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처음 마리아 부인이 소송을 제기했을 때 오스트리아 정부는 승소를 확신했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이미 나치 예술품의 후속 소유자들이 전세계 곳곳에 퍼져 있는데 이제와서 원 소유자가 달라고 하는 경우를 인정한 전례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벌어진 일을 뒤집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 것입니다. 하지만 블로흐 바우어가 조카에게 전 재산을 상속하고자 한 정황과 작품을 소유한 증거가 충분히 모아졌습니다. 상속 내용에 관한 유서도 발견되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 부인이 변호사 랜돌 쇤베르크와 함께 오스트리아 법정에 소를 제기하자 소송수수료가 160만 달러나 나와서 2000년 마리아 알트만 부인은 미국 캘리포니아 법원에 오스트리아 정부를 상대로 클림트 그림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오스트리아 정부는 처음에 이 소송이 미국에서 진행될 수 없으니 소장을 취하해야 한다는 진정서를 냈습니다. 미국법원에서의 쟁점은 본 사안이 FSIA(Forein Sovereign Immunities Act: 외국주권면책법)의 적용대상인가 하는 점입니다. 이 법은 1977년부터 시행되었는데, 외국의 주권을 존중하여 미국법원에서 외국정부가 면책이 되는 범위를 규율한 것입니다. 외국정부는 기본적으로 미국 내에서 소송의 대상이 되지 못하더라도 외국정부가 상행위(Commercial Activity)로 한 행위에 대해서는 소송의 상대방이 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미국 재판에서의 쟁점은 두 가지 입니다. 첫째, 벨데베레 미술관의 전시행위를 상행위(Commercial Activity)로 볼 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에 대해 미국 법원은 오스트리아 미술관이 영어를 구사하는 박물관인솔자를 제공하고, 미술관의 콜렉션을 미국에 선전하고 또한 특히 관할법원의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포함한 미국 관람객들을 받아들였다는 사실에 터 잡아서 벨데베레 미술관의 전시행위를 상행위(Commercial Activity)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둘째, 그렇다 하더라도 FSIA가 제정되기 이전에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도 FSIA를 적용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FSIA는 1976년 제정되어 1977년부터 시행되었는데, 클림트 그림의 전시는 그 이전부터 줄곧 있어왔던 사실입니다. 따라서 법률의 소급효 여부가 관건입니다. 이에 대해 미국연방법원은 이례적으로 마리아 알트만 부인사건에 대해 FSIA의 소급효(retoactive application)를 인정하였습니다.

소송을 미국에서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놓고 긴 분쟁 끝에 미국 대법원은 2004년 이 소송을 미국에서 진행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후 2005년 5월 18일 양측 정부는 미국에서의 재판을 종결하고 오스트리아 중재법원의 판정에 따르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때 적용되는 법률은 오스트리아 실체법을 준거법으로 하고, 중재절차도 오스트리아 중재법에 따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때 양측은 세 명의 오스트리아 출신의 전문가들 변호사 Andreas Nödl박사, 대학교수 Walter H. Rchberger박사, 대학교수 Peter Rummel박사(재판장)를 중재인으로 선임하는 것에 합의하였고 그들 중재인의 결정을 전적으로 수용하고 그 결정에 대해 더 이상 이의나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에 동의하였습니다.

중재절차에서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마리아 알트만 부인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의견서를 보내왔습니다. 그 주된 이유는 오스트리아 정부가 주된 논거로 들고 있는 아델르 부인의 유언을 살펴 보면, 그 유언의 내용이 그녀의 남편인 페르디난드를 구속할 만한 효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나치에 의해서 약탈된 클림트의 그림을 오스트리아 정부가 넘겨받게 되는 과정에서 오스트리아 정

부가 그 그림의 소유권을 인정받을 만한 법적인 권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문가들의 의견들을 토대로 오스트리아 중재법원은 2006년 1월 15일에 최종적으로 클림트의 그림은 페르디난드의 상속인들에게 귀속되어야 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과는 달랐습니다. 클림트의 작품은 1923년의 아델르 부인의 유언에 의해서가 아니라 1948년에 페르디난드 블로흐-바우어의 상속인을 대리한 구스타프 린네쉬와 오스트리아 정부와의 합의에 의해서 오스트리아가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1945년 5월 8일 역사적, 예술적 및 문화적 의미를 가진 물건의 수출을 금지하는 연방법률 환수법(Rückstellungsgesetz)의 시행으로 금전적 보상 없이 연방의 소유로 귀속되거나 연방의 소유로 인정되어 왔던 것은 1998년 시행된 문화재반환법상 원 주인에게 반환되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끝내 원고 승소로 소유권이 90세의 마리아 알트만에게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06년 1월 마리아 알트만 부인은 최종적으로 이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기적 같고 영화 같은 일이었습니다. 실제로 이 그림의 분쟁을 소재로 영화가 세 편 만들어졌을 정도였습니다. 8년간의 소송 끝에 마리아 알트만 부인은 2006년 1월에 이 그림을 포함한 5점을 모두 받아낸 뒤 유명 화장품 회사 '에스티 로더'의 오너인 로널드 로더에게 모두 팔았습니다. 이 작품 한점만으로도 당대 회화 작품 사상 최고가인 한화 1297억원(1억 3500만달러)에 팔렸죠. 2004년 뉴욕 소더비 경매에서 1억416만 달러에 낙찰된 파블로 피카소의 '파이프를 든 소년'(1905년)이 보유해 온 최고가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사실 로널드 로더는 클림트와 에곤 실레 등 오스트리아 미술작품에 애착을 가진 콜렉터로 미국 뉴욕에 오스트리아 전문 미술관 노이에 갤러리를 세울 정도였습니다. 그는 이 작품을 어릴적 빈에서 본 후 매료되어 본 소송이 처음 시작될 때부터 적극적으로 후원하고 개입했다고 합니다.

마리아 알트만 부인은 로더와 거래한 이유에 대해 "(반환 소송중) 로더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너그러운 데다 끊임없는 후원자였다."면서 숙모의 초상화가 있어야 할 가장 적당한 곳은 '노이에 갤러리'라면서 거래에 만족을 표시했고 합니다. 소송을 담당한 변호사 랜돌 쇤베르크는 엄청난 성공수임료를 받았다는 말도 있습니다. 랜돌 쇤베르크는 유명한 12음 기법을 창시한 오스트리아의 유명한 음악가 아놀트 쇤베르크의 손자입니다.
그리고 이 그림을 산 로널드 로더는 '에스티 로더' 창업주의 둘째 아들로 노이에 갤러리는 뉴욕 맨하튼에 있으며 로널드 로더가 독일과 오스트리아 출신 화가들 작품만 전시하기 위해 세운 미술관입니다. 노이에 갤러리의 설립 이외에도 로널드 로더는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최연소 기증자로 1976년 등재되었고 뉴욕 현대미술관(MoMA) 의장을 거쳐 현재는 명예의장이라고 합니다. 이런 우여곡절을 겪은 〈아델르 블로흐-바우어의 초상〉은 뉴욕의 '노이에 갤러리' 미술관에서 단연 가장 인기 있는 작품입니다. 사실 빈의 국립미술관에 있을 때에도 오스트리아 국민들이 아주 사랑하던 그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마리아 알트만 부인의 소유라는 재판의 최종 판결이 나온 직후엔 빈 시내 곳곳에 '아델르, 안녕(Ciao Adele)'이라고 쓰인 '슬픈' 플래카드가 걸리기도 했었습니다. 창

저자 소개
김별다비 / 변호사, 큐레이터

변호사가 되기 전에는 미술을 전공하고 쇳대박물관 큐레이터, 아르코미술관 큐레이터로 근무했다. 현재는 엘지전자 스마트 비즈니스센터(컨텐츠/플랫폼 사업부) 디바이스 개인정보 task에서 근무하고 있다. 3회 대법원 가인법정변론대회에서 형사변론부문 전국우승을 한 바 있다. 대안공간 정다방, 리각 미술관, 종로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미술법을 강의한 적이 있고, 월간 BizArt지와 한국박물관협회지에 미술법 칼럼을 쓰고 있다.

참고
그림 출처, 위키피디아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 2011년 문화재청 용역 최종보고서 문화재 반환 분쟁해결 국제사례 연구
이규현, 세상에서 가장 비싼 그림 100
박희숙의 명화 읽기, 구스타프 클림트, 화폭에 에로티시즘을 담다
동아일보, 클림트, 피카소 누르다 '…블로흐 바우어의 초상' 최고액, 2006-06-20
머니투데이 뉴스1, '아델르 블로흐-바우어의 초상'…클림트 그림에 얽힌 사연 2012.02.09
월간 조선, 이규현의 '아트토크' - 나치가 몰수했던 그림들의 운명 2014년 1월호
이호숙, 소유의 집념과 열정, 아트 컬렉터의 자세, 노블레스 3호
THE ART OF WAR http://nayun2006.egloos.com/5800158
음악 컬럼니스트 정준극, 아놀드 쇤베르크 http://blog.daum.net/johnkchung/6823645

톺아보기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간통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 바로 '간통죄'이다. 간통죄는 2015년 2월 26일,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 자유를 침해 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받았다. 이로써 간통죄는 62년 만에 폐지됐지만, 십계명에도 나와 있듯 늘 염두에 둘 것! '간음하지 말라!' editor. 박소희

[어학사전]
'톺아보기'는 '샅샅이 톺아가면서 살펴보다'라는 순 우리말로,
틈이 있는 곳마다 모조리 뒤지면서 찾는 것을 의미한다.

불륜을 다룬 작품 Best 5

네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

밀회

성공을 위해 앞만 바라보고 달려온 예술재단 기획실장 오혜원(김희애)과 자신의 재능을 모르고 살아온 천재 피아니스트 이선재(유아인)의 음악적 교감과 애틋한 사랑을 그린 멜로드라마, 라고 프로그램 소개에는 적혀있다. 하지만 스무 살이 넘는 나이차와, 혜원에게는 버젓이 남편이 있다는 것이 문제. 물론 이 모든 문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혜원과 선재는 농밀한 만남을 가진다. 모 개그 프로그램에서 '스물 한 살 유아인'이라는 유행어가 생겨났을 만큼,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다. 혹평을 받았던 여러 불륜드라마들과 다르게, '고품격 불륜드라마'로 사랑받은 작품이다.

관전포인트 지천명을 앞두고 있는 나이로는 절대 보이지 않는 희애언니의 물광 메이크업. 그리고 유아인 뛰는 포즈. 〔한국드라마/ JTBC / 2014.03.17.~2014.05.13〕

불륜

주인공 린다는 명망 있는 신문사의 인정받는 기자다. 결혼 10년차의 그녀는 '가장 부유한 스위스인 300인'에 매년 이름을 올리는 남편과 멋진 두 아이와 함께 살고 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이는 그녀에게 어느 날 일상의 권태로움이 찾아오고, 동시에 어릴 적 잠깐 사귀었던 야코프가 나타난다. "당신 행복해? 당신 눈에 뭔가 있어. 훌륭한 남편에 좋은 직업을 가진 당신처럼 예쁜 여자에게 어울리지 않는 슬픔이 보여."라는 야코프의 한 마디에 그녀는 격정적으로 사랑에 빠진다. 작가 파울로 코엘료는 린다를 통해 잠깐의 사랑은 마약과 같아 조만간 그 효과는 사라지고 더 깊은 절망이 찾아옴을 일깨워준다.

관전포인트 거짓말을 일삼고, 야코프를 만나며, 심지어 그의 아내를 위험에 빠뜨리려고 범죄까지 저지르는 린다. 그녀의 위험한 질주를 지켜보는 쫄깃한 재미. 〔 장편소설 / 파울로 코엘료 / 문학동네 / 2014.07〕

간기남

영화의 제목을 잘 봐야 한다. '간지남' 아니고 '간기남'이다. '간통을 기다리는 남자'의 줄임말이란다. 정직 중에도 간통 사건에 일가견이 있는 장기를 살려 부업으로 흥신소를 운영하고 있는 간통 전문 형사 선우(박희순). 복직을 3일 앞두고 한 통의 사건이 접수된다. 가벼운 마음으로 불륜 현장을 덮치기 위해 출동한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두 구의 시체!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는 죽은 남자의 아내 수진(박시연)뿐. 선우는 순식간에 살인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몰릴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하게 되는데.

관전포인트 제목에서부터 간통 좀 하는(?) 사람들이 즐비할 것만 같은 느낌의 이 영화. 섹시한 주연 배우 덕분에, 두 눈이 호강. 〔한국 영화 / 2012.04.11. / 117분〕

내 생에 꼭 하루뿐일 특별한 날

작가 전경린의 두 번째 장편소설로, 사랑이란 열망하면 할수록 안정된 삶을 위협하는 불온한 정열임을 그려내 보이는 한편, 불온한 욕망, 모호한 생의 불안으로부터 진정한 나를 찾아가는 작품이기도 하다. 서로가 평생 한 사람만을 사랑하는 항구적이고 안락한 삶을 꿈꾸던 미흔. 그러나 남편의 외도로 삶의 의미를 잃은 그녀 앞에 위험한 관계를 제시하는 남자 규가 나타난다. '마음속에 금지를 가지지 말라'는 남자의 말에 이끌리듯 미흔은 규와의 관계에 빠져들고, 그에 대한 감정은 걷잡을 수 없이 사랑을 향해 내달린다. 마침내 미흔은 이 사랑을 통해 권태로운 삶의 이면에 숨겨진 불온한 욕망을 발견하기에 이른다.

관전포인트 긴 호흡의 문장과 짧은 호흡의 문장, 둘의 적절한 조화로 책장은 술술 넘어간다. 〔장편소설 / 전경린 / 문학동네 / 2014.12〕

디 어페어

혼외관계를 남성과 여성, 양쪽 모두의 시각에서 깊게 관찰해 볼 수 있는 신작 미드. 뉴욕에 있는 학교 선생이자 소설가로 행복하게 결혼생활을 하고 있던 노아(Dominic West)는 부유한 장인에 의존하며 자괴감에 빠진다. 좋은 글을 쓰기 위해 가족과 함께 떠난 장인의 휴양지 몬탁에서, 노아는 젊은 웨이트리스 엘리슨(Ruth Wilson)의 유혹을 받게 된다. 엘리슨 역시 남편이 있지만, 일상의 권태로부터 자신을 탈출시켜 줄 노아를 놓칠 수는 없다. 올해 초 제72회 골든글로브 TV 드라마 작품상의 영예를 안았을 만큼, 각본과 연출 모두 뛰어난 작품! 창

관전포인트 드라마의 배경인 뉴욕 롱아일랜드 몬탁. 시청자들에게는 불륜이지만, 본인들에게는 로맨스인 '사랑'이 이루어지기에 안성맞춤일 정도로 아름다운 장소! 〔미국드라마 / Showtime / 2014.10.12.~2014.12.21〕

영국의 글로벌 부동산컨설팅업체 '나이트프랭크'가 발표한 '2015년 부(副) 보고서'에 따르면, 전세계 0.0002%의 최상층 슈퍼부자는 17만 2,850명이라고 한다. 이들은 약 3천만 달러(한화 330억 원) 이상을 순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다고 하니, 상상조차 안 되는 어마무시한 부자임에 틀림없다! 그리고 이런 슈퍼부자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명품은 가방도, 구두도 아니오, 바로 예술품! 일반인에게나, 슈퍼부자들에게나 예술품은 언제나 신비로운 존재인가보다. 슈퍼부자가 아니라서 예술품을 집에다 고이 모셔 놓을 수는 없지만, 튼튼한 두 다리로 언제든지 미술관에 갈 수 있으니 기죽지 마시길! 상대적 박탈감, 댓츠노노!

공연장소 남산예술센터 드라마센터
공연기간 2015.4.29.(수)~2015.5.31.(일)
관람료 전석 30,000원
홈페이지 http://www.iseensee.com/

오월의 꽃 바람 다하도록 죽지 않는 사랑

푸르른 날에

서울문화재단 남산예술센터와 신시컴퍼니가 공동 제작하는 연극 〈푸르른 날에〉가 5월 31일(일)까지 남산예술센터 드라마센터 무대에서 관객과 다시 만난다. 올해로 5번째 시즌을 맞은 연극 〈푸르른 날에〉는 지난 2011년 초연부터 함께 해왔던 배우들이 선보일 마지막 고별 무대이다.

〈푸르른 날에〉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배경으로 민호와 정혜의 사랑과 그들의 30년간의 인생 역경을 그린 작품이다. 2011년에 초연됐으며 같은 해 대한민국 연극 대상에서 '작품상', '연출상', '올해의 연극 베스트3'를 수상한 바 있다. 이후 재공연에서도 연속 매진을 기록하며 '5월이면 꼭 봐야하는 연극'이라는 명성을 얻었다.

Perfomance

To pee or not to pee, That is the question!

웃기는 수작(秀作), 뮤지컬 유린타운!

뮤지컬 〈유린타운〉은 우리말로 표현하자면 '오줌 마을'이다. 물 부족에 시달리는 가상의 마을에서 '유료 화장실 사용권'을 둘러싸고 이익을 취하려는 독점적 기업과 가난한 군중들이 대립하고, 급기야 군중들로부터 민중봉기가 일어나 대혼란에 빠지게 된다.

〈유린타운〉은 말초적 상업극에서도 좀처럼 사용하지 않고, 터부시되는 제목을 과감히 사용하고 그것을 가벼운 터치로 다듬어내고 있지만, 부조리한 사회에 대한 날카로운 풍자와 비판정신을 숨긴, 수준 높은 블랙 코미디이다. 또한 랩, 가스펠, 재즈, 흑인영가, 컨츄리 등 다양한 음악의 장르가 혼합되어 있는 유린타운의 넘버들은 전자음을 배제한 어쿠스틱 악기들로만 구성되어 듣는 이로 하여금 따뜻함과 흥겨움을 선사한다.

공연기간 2015.5.17.(일)~2015.8.2.(일)
관 람 료 VIP석_10만원, R석_8만원, S석_6만원
홈페이지 http://www.iseensee.com/

Festival

우리들의 봄, 그린플러그드 서울
Green Plugged SEOUL 2015

봄을 대표하는 음악 페스티벌 〈그린플러그드 서울 2015〉은 모두가 함께 어우러져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환경 캠페인 뮤직 페스티벌로, 총 100여 팀의 출연진들이 관객들과 만날 예정이다.

YB, 국카스텐, 원모어찬스, 버즈, 다이나믹 듀오, 에피톤 프로젝트, 노을, 몽니, 윤하, 플라워, 로열 파이럿츠, 로다운30, 루시아, 장재인 등 국내 최고의 뮤지션들이 다수 포함되어 마니아 층은 물론 대중들의 관심 또한 집중시키고 있다.

특히 이번 그린플러그드 서울에서는 네이버 뮤직과 공동으로 신인 뮤지션 선발 프로젝트 〈신인 그린프렌즈〉 공모를 진행해, 더욱 높은 밀도의 효과적인 뮤지션 지원도 함께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공연장소 난지한강공원
공연일시 2015.5.24.(토)~2015.5.25.(일)
관람료 양일권 입장권_109,000원
1일권 입장권_66,000원
홈페이지 http://www.gpsfestival.com/

Exhibition

전시장소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1층
전시기간 2015.3.23.(월)~2015.6.28.(일)
관 람 료 성인 15,000원 / 청소년 10,000원
어린이 8,000원
홈페이지 www.markrothko.co.kr

스티브잡스가 사랑한 추상화의 대가
마크 로스코 展

세계에서 가장 비싼 그림의 주인공 마크 로스코의 오리지널 유화작품 50점의 회고전이 국내 최초로 전시된다. 추상 표현의 대가이자 평면회화의 혁명가로 불리는 마크 로스코는 추상 세계의 문을 연 작가로 이름을 알렸으며, 그의 작품 속 감정과 색채의 휴먼드라마는 관람객들이 스스로를 위로할 수 있는 시간을 선사한다.

특히 마크 로스코의 작품은 故스티브 잡스가 사랑한 그림으로도 유명하다. 잡스는 '복잡한 사고의 단순한 표현'이라고 말한 마크 로스코의 철학에 깊이 공감해 그것을 애플의 디자인 철학으로 삼았다고 알려져 있다. 창

동기사랑 나라사랑!

공익변호사 동기를 위해 '천원의 약속' 실시한 서울대 로스쿨

장래 공익변호사가 될 친구에게 첫 월급을 마련해주자는 취지에서 서울대 로스쿨 2,3학년 학생들의 '천원의 약속' 프로젝트가 시작됐다. 매달 1,000원씩 자동이체해서 십시일반 기금을 모으기로 한 것. 2학년 학생들은 '공익을 밝힌다'라는 뜻의 '공명'펀드에, 3학년은 '공익을 꿈꾼다'는 의미의 '공드림'펀드에 최소 2년간 돈을 모으기로 했다. 이렇게 만든 400만 원 가량은 변호사시험을 친 후 공익 변호사로 진로를 결정하는 친구에게 선물할 예정이다.

서울대 법대 휴게실에 모인 학생들
사진출처: 조선일보

'변호사'로 명 받았습니다!

법무부, 제4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1,565명 발표

법무부는 지난 4월 10일 제9차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제4회 변호사시험 합격자와 2016년 제5회 변호사시험 합격기준을 결정·발표했다. 제4회 변호사시험은 총 2,561명이 응시했지만, 1,565명이 합격해 합격률 61.1%에 그쳤다. 남성합격자는 893명(57.06%), 여성합격자는 672명(42.94%) 등으로 여성합격자 비율이 지난해(681명, 43.94%)에 비해서 조금 줄었다. 한편 법무부는 2016년 제5회 시험합격자는 기존 기준과 유사하게 '원칙적으로 입학정원 대비 75%(1,500명) 이상으로 결정하되 기존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수와 합격률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결정'하겠다고 밝혀, 로스쿨 재학생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제4회 변호사시험 시험장 현장

캠퍼스에서 열리는 실제사건 재판

동아대 로스쿨에서 부산고등법원 재판 진행!

지난 4월 13일 오전 10시 동아대 로스쿨에서는 부산고등법원 제2민사부 항소부 실제 재판이 진행됐다. 항소심 사건 2014나3108(보험금)은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가혹행위 등으로 사망한 것으로 결정되어 순직확인 통보를 받았으나 외관상 자살로 보이는바, 보험금 면책사유인 망인(피보험자)이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는 사안이다. 사건의 쟁점은 보험금지급 면책사유 해당 여부, 재해로 인하여 발생한 보험사고인지 여부, 보험금 청구권의 시효소멸 여부로, 쌍방 소송대리인의 변론과 전문가(정신과 의사)의 증인 신문도 진행됐다. 이번 '캠퍼스 열린법정'은 로스쿨생을 비롯한 대학생, 교직원, 지역주민들이 캠퍼스에서 실제 재판을 접하고 법관들과 직접 대화하는 기회를 제공받음으로써, 재판에 대한 이해와 친밀도를 높이는 계기가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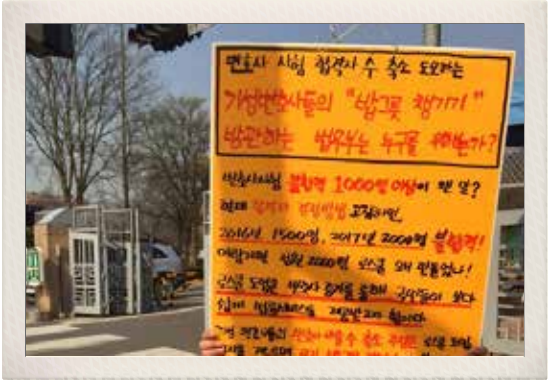
캠퍼스 열린법정 홍보 포스터

Hot ISSUE

학생들이 뿔났다!

로스쿨 취지 살리자는 1인 시위 펼쳐

제4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법무부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로스쿨 재학생의 1인 피켓 시위가 펼쳐졌다. 이번 시험에 응시한 수험생이자, 로스쿨 재학생인 시위자는 "현재의 합격자 결정 방법을 고집하면, 2017년에는 2,000명이 불합격 된다."며, "이럴 거면 정원 2,000명의 로스쿨 왜 만들었나"고 주장했다. 특히 로스쿨은 변호사 증가를 통해 국민들에게 보다 쉽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도입됐고, 기성 변호사들이 변호사 배출 수 축소를 끊임없이 주장하는 것은 로스쿨 도입 취지를 거스르며 자기 밥그릇을 챙기는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법무부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1인 피켓 시위를 하는 로스쿨 학생
사진출처: 법률저널

할아버지 · 할머니를 위한 무료 법률상담

충남대 로스쿨, 마을변호사와 함께하는 리걸클리닉 시행

충남대 로스쿨 법률상담소는 '마을변호사와 함께 하는 리걸클리닉'이라는 주제 아래, 충남 금산군 복수면 마을회관에서 무료법률상담을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금산군 복수면 마을변호사인 박철환 변호사(로스쿨 2기)와 로스쿨 학생들이 참여하여 지역주민들의 법률적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자리였다. 특히 20여명의 주민(주로 노인)에게 무료로 법률상담을 제공함으로써, '법률소외계층에 대한 법률 지원'이라는 큰 의의를 가지며 성공리에 마무리됐다.

충남 금산군 복수면 곡남1리 마을회관 리걸클리닉 무료법률상담 모습
사진출처: 충남대학교 로스쿨 리걸클리닉센터

아시아팀 유일 상해모의재판대회에서 4강 진출!

성균관대학교 로스쿨팀, 국제상사중재 국제대회 쾌거

지난 3월 9일부터 13일까지 중국 상해 상해국제중재센터 등에서는 '제5회 상해 국제상사중재 모의재판대회(Moot Shanghai for the Willem C. Vis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Moot)'가 열렸다. 30여 팀이 참가해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된 이번 대회에서, 성균관대학교 로스쿨 The Advocacy팀은 유일한 한국팀으로 참가해 쾌거를 이뤄냈다. 특히 아시아 팀으로는 유일하게 4강에 진출해, 'Semi-Finalist상' 및 '우수 변론상(6기 진경운)'을 수상하는 성과를 올렸기에 큰 의미가 있다. 4강 진출팀은 University of Denver(미국팀, 우승), Pontifical Catholic University of Sao Paulo, 성균관대학교 로스쿨팀, Bucerius Law School(독일팀)이다.

성균관대 로스쿨 'The Advocacy'팀
사진출처: 법률저널

LAWSCHOOL NEWS

〈법학적성시험의 성과와 발전방향〉 공청회 개최

지난 4월 3일(금)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대회의실(서울 서소문동 소재)에서는 법학적성시험의 성과와 발전방향을 주제로 하는 공청회가 열렸다. 공청회의 축사로는 신영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이점인 법학적성시험 연구사업단장이 자리했다. 공청회는 주제발표 1부와 2부, 종합토론으로 구성됐으며, 각각의 사회는 김하열 고려대학교 교수, 장재옥 중앙대학교 교수가 맡았다. 주제발표와 토론은 민찬홍 한양대학교 교수, 김재철 한남대학교 교수, 현소혜 성균관대학교 교수, 하재홍 경기대학교 교수, 송하석 아주대학교 교수, 박정하 성균관대학교 교수, 안중홍 가천대학교 교수, 신동룡 강원대학교 교수가 맡아서 진행됐다.

주제발표 중인 하재홍 경기대학교 교수

〈로스쿨 잡콘서트 JOB Concert〉 열려

4월 23일(목) 한국경제신문사 다산홀(서울 중림동 소재)에서는 로스쿨 출신 우수 인재들을 채용하기 위한 〈로스쿨 잡콘서트〉가 개최됐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와 한국경제신문이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잡콘서트에는 삼성, 현대자동차, LG, SK텔레콤, 롯데백화점, 한화, 대한항공, 우리은행 등 국내 대표 기업과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 정부 및 공공 기관이 참여했다. 참여 기업과 기관은 채용설명회 및 1 대 1 상담을 진행했으며, 로스쿨 학생들에게 변호사 채용 계획과 원하는 인재상을 설명했다. 법조인 출신 기업인들의 특별강의도 이어졌다. 특히 이번 잡콘서트에는 김기웅 한국경제 사장, 하창우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을 비롯해 유관기관장들이 참석해 자리를 더욱 빛냈다.

잡콘서트 개별상담 현장

〈법학전문대학원 대표단 방문〉 행사 개최

4월 24일(금) 고려대학교 법학관에서는 25개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대표단 방문 행사가 진행됐다. 25개 법학전문대학원을 순차적으로 방문하면서 진행되는 대표단 방문 행사를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시작한 셈이다. 염재호 고려대학교 총장은 축사를 통해 25개 법학전문대학원의 안착과 앞날을 기원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교내 시설 탐방,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운영현황 및 교육과정을 소개하는 일정과 로스쿨 주요 현안사항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창

25개 법학전문대학원 원장(고려대학교 CJ법학관)

가로 열쇠

① 법원이 직권으로 법정 내외에서 재판장의 명령에 위배하는 행위나 폭언 · 소란 등의 행위로 법원의 심리를 방해하거나 재판의 위신을 현저하게 훼손한 자를 구속시키는 제재조치.

②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이다.(형법 제297조)

③ 형을 선고할 때 정상을 참작하여 일정한 기간(1년 이상 5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법원이 정하는 기간) 그 집행을 유예하여, 유예가 취소됨이 없이 무사히 그 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그 효력을 잃은 것으로 보는 제도.

④ 지방법원이 그 관할에 속한 사건에 대하여 통상의 공판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약식명령이라는 재판에 의하여 벌금 ·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는 간이한 절차를 말한다.(형사소송법 제448조)

⑤ 실질적으로는 혼인생활을 하고 있으나 신고는 하지 않은 사실상의 부부관계를 말한다.

⑥ 신체의 자유를 구속한 자를 일정한 장소에 연행하는 것을 말한다. 구인(拘引)의 효력으로서 인정된다.

⑦ 교전당사자의 작전지대 내에 있어서 상대방 교전자에 통보할 의사를 가지고 비밀로 또는 허위의 구실하에 행동하여 정보를 수집하거나, 하려고 하는 자를 말한다.

⑧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밖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 특권을 말한다.(헌법 제45조)

세로 열쇠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摘示)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형법 제307조)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死者)의 명예를 훼손(같은 법 제308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

② 확정판결이나 공정증서 등 채무명의를 가지고 채권자가 국가권력에 대하여 그 집행을 신청하고, 국가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실력으로 그 청구권을 실현시켜주는 절차를 말한다.

③ 매매나 임대차의 경우와 같이 계약당사자 쌍방이 서로 대가적인 의미를 가지는 출손(대금이나 차임)을 하는 계약을 말한다. 무상계약에 대립하는 용어.

④ 근대국가는 어떠한 것을 범죄로 규정하고 형벌을 과할 것인가에 대하여 반드시 법률로써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범죄가 행해졌는가의 여부와 그 범죄를 어떻게 처벌해야 하는가는 공평한 법원의 재판을 받지 않으면 확정되지 아니한다. 이 형사재판의 절차를 ○○○○○○라 한다.

⑤ 혼인을 빙자하거나 기타 위계로서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⑥ 당사자가 법원 또는 상대방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정에 위배된 소송행위에 대하여 이의를 하고 그 무효를 주장하는 소송상의 권능.

⑦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에 대한 침해를 말한다. 창

가LAW 세LAW
낱말 퀴즈

(가로열쇠) 1. 감치명령 2. 강간죄 3. 집행유예 4. 약식절차 5. 사실혼
6. 인치 7. 간접 8. 면책특권
(세로열쇠) 1. 명예훼손죄 2. 강제집행 3. 유상계약 4. 형사소송절차
5. 혼인빙자간음죄 6. 책문권 7. 권리침해

1		1		■	■	8	6		7
■	■		■	■	■	■		■	
■	■		■	■	■	■		■	
■	■		■	■	■	■	■	■	
2			■	■	4	■	■	■	■
	■	■	■	■	5		5	■	■
3		3		■		■	6		■
	■		■	■		■		■	■
■	■		■	■		■		■	■
■	■	4				■	7		■
■	■	■	■	■	■	■		■	■
■	■	■	■	■	■	■		■	■

INTERNSHIP

DLA Piper 서울사무소 인턴 채용

세계 32개국에 78개 사무소, 4,500여명의 변호사를 보유하고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Global leading 로펌 DLA Piper의 서울사무소가 로스쿨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턴십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본 인턴십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는 우수한 로스쿨 학생들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 인턴십 기간: (1) 2015.6.22.(월)~2015.7.17.(금) 4주
  (2) 2015.7.20.(월)~2015.8.14.(금) 4주
- 선발방식: 1차 서류심사 – 2차 개별면접
- 지원방법: 국/영문 이력서(각 2page 이내), 영문 자기소개서(각 1page 이내) 및 성적증명서
- 제출기한: 2015.6.7.(일) PM6:00까지
- 제출처: 인턴십 프로그램 담당자(seoul.office@dlapiper.com) 이메일 접수

ISSUE

국민안전 · 국민행복 법령 만들기를 위한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법제처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 공모기간: 2015.3.16.(월)~5.31(일)
- 참가자격: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 공모주제: 일상생활에서 법령으로 인하여 불편을 느꼈던 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 제안
- 공모방법: 국민참여입법시스템(http://community.klaw.go.kr/BP/idea)
  온라인 접수 및 우편접수
- 당선작 발표: 2015.6.17.(수)
- 문의처: 법제처 법령정비담당관실(tel. 044-200-6572)

한국은행 주최 금융경제법 연구논문 현상공모

한국은행
THE BANK OF KOREA

- 공모대상: 법학전문대학원 및 일반대학원(법학전공) 재학생(휴학생 포함)
  개별 또는 공동으로 응모 가능(인원수 제한 없음)
- 공모부문: 금융경제법 관련 현안 또는 개선과제 등
- 작성방법: 논문 형식, 표지 포함 20페이지 이상
- 응모방법: 이메일(legaloffice@bok.or.kr) 또는 우편으로 제출
- 마감일: 2015.7.17.(금) 오후 6시
- 결과발표: 수상자에 한하여 2015.11월 중 개별 통지
- 문의처: 한국은행 법규제도실(tel: 02-759-4095, 4087)

제4회 외교부-한국라틴아메리카학회(LASAK) 중남미 논문 공모전 공모

MINISTRY OF FOREIGN AFFAIRS MOFA 외교부

- 참가자격: 4년제 국내외 대학교 또는 국내 일반(전문)대학원에 재학(휴학 포함) 중인 자
- 논문주제: 중남미 사회과학 분야(정치, 경제, 법, 역사, 대외관계, 사회 등)
- 제출기한: 2015.10.5.(월) 24:00
- 작성방법: 논문, A4 15매 이내
- 응모방법: 논문공모전 신청서와 함께 이메일(lasakorea@gmail.com)로 접수

〈로스쿨 창〉은 로스쿨의 대표 언론, 소통의 장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로스쿨 학생들의 꿈을 담는 '깨끗한 창'이 되겠습니다.

로스쿨 창 명예기자 2기 모집

〈로스쿨 창〉이 창간 1주년을 맞아 새로운 도약을 함께 할 참신하고 역량 있는 명예기자 2기를 모집합니다. 로스쿨 창은 격월간으로 발간되는 정기간행물로 4,000부씩 발행되어, 청와대, 국회, 정부부처, 언론사 등 다양한 곳으로 배포되고 있습니다. 로스쿨에 대한 각종 오해와 편견을 불식시키고, 전국 로스쿨 학생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모집 대상
- 열정적인 전국 로스쿨 1,2학년생
- 취재 및 기사 작성을 하실 수 있는 분

모집 인원
- 00명 (각 로스쿨별 1~2명)

모집 일정
- 접수 기간: 4월 24일(금) ~ 5월 17일(일) 24:00까지
- 결과 발표: 5월 19일(화) 예정, 개별통보 및 홈페이지 공지

접수 방법
- 명예기자 지원서를 작성하여 이메일(showe@leet.or.kr) 송부

제출 서류
- 명예기자 지원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홈페이지(http://info.leet.or.kr/)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활동 기간
- '15. 6. 1 ~ '16. 5. 31 (1년)

주요 활동
- 〈로스쿨 창〉 모니터링
- 원고 작성(분기별 1건)

활동 특전
- 원고 채택 시 원고료 지급
- 우수자 활동증서 및 감사장 수여
- 협의회 발간책자(변호사시험 모의고사 해설집 등) 및 자료 제공

문의사항
- 02)752-2037, showe@leet.or.kr

강원대학교

건국대학교

경북대학교

경희대학교

고려대학교

동아대학교

부산대학교

서강대학교

서울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아주대학교

연세대학교

영남대학교

원광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인하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제주대학교

중앙대학교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21세기를 이끌어나갈 경쟁력 있는 법조인을 양성합니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KOREAN ASSOCIATION OF LAW SCHOOLS